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잉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84호

Thursday, April 4, 2024 A

“애난데일 성폭행 피해자는 한인”

지난 3월20일에 발생,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애난데일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대낮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50대 한인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오전 11시경 발생한 사건은, 용의자 케빈 로페즈 알탄(24)이 존마 드라이브 선상의 한인 운영 업체에 침입하며 시작됐다.

용의자는 한인 업주를 강제로 감금하고 8시간 동안 여러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범인이 방심한 틈을 노려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탈출해 “살려달라”고 외치며 도움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팩스 경찰은 히스패닉 용의자를 체포하고 12개 이상의 중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범죄 예방 세미나’에 참석한 페어팩스 카운티 메이슨 지구 소속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설명하며 “한인 사

한인커뮤니티센터 ‘범죄예방 세미나’서 밝혀
페어팩스 경찰 “업주들 범죄 경각심 높여야”



회의 범죄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해, 세미나를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애난데일 지역 주민들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 지역 강력범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3월17~23일 기간 동안에만 메이슨 지구에서 34명을 중범죄 혐의로 체포하고, 경범죄로 75명을 구속하는 등 지역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시 새사노 경사는 “대부분의 범죄의 90%가 ‘피해자를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 진다”고 했다. 새사노 경사는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해도 ‘기회’를 차단한다면 80%의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박세용 기자

▶ 3면 ‘범죄예방’으로 이어집니다

MD 민주당 “호건 때문에 꼬이네”

예산 부족, 세금 올리고 싶어도
상원선거 호건 당선될까 ‘고민’



정기회기를 10일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와중에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브릿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메릴랜드 의회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세금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나, 래리 호건 전 주지사(공화·사진)가 연방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기고 말았다.

메릴랜드 의회는 현재 예산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교통과 K-12 공립학교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하지만, 웨스 무어 주지사와 상원의원은 세금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예산안 통과를 고집하는 반면, 하원 의회는 향후 10개년 예산 전망 보고서를 근거로 최소한의 교통 및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원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자, 무어 주지사는 의견 조율을 위해

빌 퍼거슨 상원의장은 “우리가 세금을 인상할 경우 호건 전 주지사가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연속 당선된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메릴랜드는 민주당 대 공화당 유권자 비율이 2대1이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의회와 행정부가 세금인상을 단행하면서 이에 반발한 민주당 유권자들이 주지사 선거에서 호건 주지사를 대거 지지하면서 이번이 발생했다. 김옥재 기자

▶ 3면 ‘호건 때문에’로 이어집니다

한국인 전용비자 추진위 결성

뉴욕한인회 등 8개 단체 참여
“의회 통과위해 전국 서명운동”

10년 넘게 번번이 무산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꾸려졌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진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번에는 꼭 E-4비자 신설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미국과 자유무

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지만, 한국 정부는 FTA 체결 당시 E-4비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 1일 ‘E-4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4비자 신설법안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뉴욕한인회 ▶한미연합회(AKUS)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미주한인총연합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

연합회 ▶한국무역협회(KITA)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창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이사장은 “FTA 체결 당시 실기했는데, 늦게나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연방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한두 단체가 아닌, 미국내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각 단체의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청원운동(change.org/PartnerWithKoreaAct)을 펼치고, 지역별 연방의원을 상대로 법안 스폰서로 나서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편당을 위한 경제위원회도 곧 조직해 10만 달러 가량의 자금을 조성하는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김은별 기자



‘대만의 허리’ 때린 7.2 강진 - 137명 고립 3일 대만 동부 화롄(花蓮)시 동남쪽 7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9층짜리 텐왕성 빌딩 한쪽이 붕괴한 채 기울었다. 대만 당국은 이날 밤 텐왕성 빌딩 고층부에 고립된 2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으로 9명이 숨지고 963명이 다쳤다.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대만 전역에서 산사태와 도로 붕괴, 정전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번 지진은 2400명의 사망자를 낸 1999년 강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 관계기사 10면 [A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의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울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 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전현희·윤희숙 격차 벌어져... 민형배, 이낙연에 51%p 우세

(48%)

(3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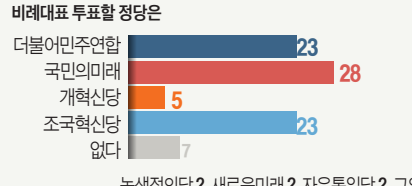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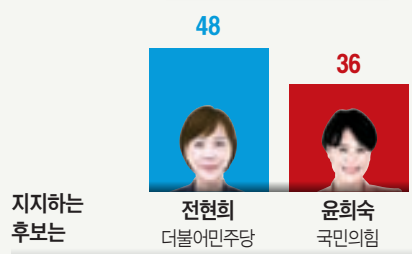
(14%)

중앙일보 22대 총선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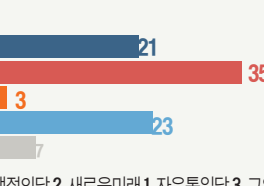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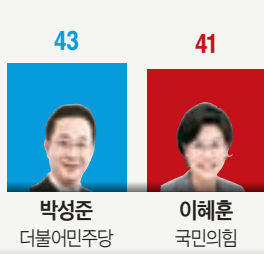
단위 %

조사업체 한국갤럽
 조사기간 4월 1~2일 만 18세 이상
 서울 중·성동갑 응답률 18.1%(2779명 중 503명)
 서울 중·성동을 응답률 10.8%(4620명 중 501명)
 서울 영등포갑 응답률 16.0%(3138명 중 501명)
 광주 광산을 응답률 10.8%(4641명 중 503명)
 부산 북갑 응답률 13.6%(3669명 중 5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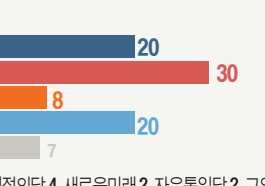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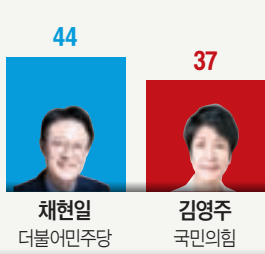
서울 중·성동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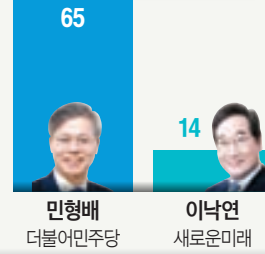
서울 중·성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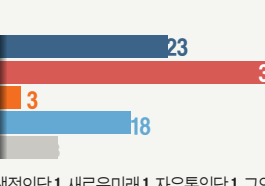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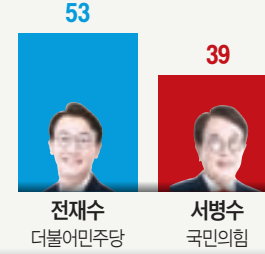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갑



광주 광산을



부산 북갑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여야, 투표 독려·지지층 결집 호소

서울 중·성동갑은 커리어가 만만찮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로 시선을 끈다. 재선 의원 출신의 전 후보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고, 경제학 박사인 윤 후보는 “나는 세입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연설로 유명하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2일 중·성동갑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 후보는 48%의 지지율로 36%인 윤 후보를 12%포인트 차로 앞섰다. 지난달 13~14일 진행된 같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39%로 같았는데 보름여 만에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우열 구도가 형성됐다. 중·성동갑은 2000년 이후 여섯 번의

총선(16~21대)에서 18대를 제외하곤 전부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질문엔 범야권 우세 전망(57%)이 국민의힘 우세 전망(26%)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미래 28%,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 각각 23%, 개혁신당 5%였다. 서울 중·성동을(1~2일, 유권자 501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초접전 양상이다. 박성준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 43%,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는 41%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였다. 일주일 정도 전 다른 여론조사(JTBC-메타보이스, 3월 25~26일, 무선면접)에선 박 후보가 45%, 이 후보는 36%였다. 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을 12억~16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완화하는 공약을,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남산 고도제한 완화 공약을 내걸었다. 중구 1선거구(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등)에서는 박 후보 44%, 이 후보 40%였다. 당선 가능성에선 박 후보 46%, 이 후보 33%로 오차범위 밖인 13%포인트 차였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미래 35%, 조국혁신당 23%, 더불어민주당연합 21%였다. 범야권 승리 전망(53%)이 여당 승리를 전망한 응답(27%)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3자 구도로 짜인 서울 영등포갑(1~2일, 유권자 501명)에서 채현일 민주당 후보와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후보 지지율은 44%로 37%인 김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인 7%포인트 우위였다. 허은

아 개혁신당 후보는 5%,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7%였다. 채 후보는 영등포구청장 출신으로 바닥 정서에 강점이 있고, 19대 때부터 내리 3선을 한 김 후보는 관록에서 앞선다. 당선 가능성에선 채 후보 53%, 김 후보 30%로 오차범위 밖인 23%포인트 차였다. 민주당 지지자의 86%가 채 후보 당선을, 국민의힘 지지자의 64%가 김 후보 당선을 예상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허 후보의 당선 가능성 전망은 2%였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미래가 30%,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0%였다. 범야권 승리를 내다본 응답자(59%)가 여당 승리 전망(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민주당과 제3당에 대한 호남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광주 광산을(1~2일, 유

권자 503명)은 민주당 우세가 뚜렷했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 65%,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14%로 격차는 51%포인트였다. 당선 가능성은 민 후보 80%, 이 후보 8%로 차이는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58%, 조국혁신당 15%, 국민의힘 6%, 진보당 3% 순이었다. 이 후보가 공동대표인 새로운미래는 2%로, 이 후보 개인 지지율보다 낮았다.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 38%로 동률이었고, 국민의미래가 5%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 3%였다. 40대(민주당 37%, 조국혁신당 48%), 50대(민주당 25%, 조국혁신당 61%), 70세 이상(민주당 29%, 조국혁신당 38%)에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효성·김기정·정용환 기자

이재명 “투표로 신상필벌”... 한동훈 “전국 55곳서 박빙”

4·10 총선 사전투표(5~6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투표 독려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부산·경남(PK)을 찾아 “윤석열 정권을 신상필벌하자”며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경남 창원시장 유세에서 “동네 강아지도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야 바른 강아지가 된다”며 “일시키는 일꾼들도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찍 일찍 투표하자. 한 명이 3표씩 확보하자”며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에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현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규정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부산 서면에서 “전두환도 국민을 나름 무서워하고, 존중하고, 눈치 보는 척은 했다. 근데이 정부는 내가 하는데 어쩔래, 야너 사면, 출마해. 바로 출마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무시”라고 비판했다. PK는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핵

심 관계자도 “배재정(사상)·정명희(북을)·박영미(중·영도)·서은숙(진갑)·변성완(강서)이 초반빙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부산 현역인 전재수(북갑)·최인호(사하갑) 민주당 의원은 완전 우세, 박재호(남) 의원은 박빙 경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대전에서 KAIST 재학생과 사전투표에 나선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 그중 수도권이 26곳”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유세 현장에서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개헌) 저지선마저 뚫리면 많은 사람이 피땀 흘려 이룬 대한민국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국민의힘 후보들의 불안감도 증폭되자 개헌 저지선(100석)을 언급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

선 모양새다. 한 위원장은 충북에 이어 강원, 경기 순으로 격전지를 돌며 투표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사전투표는 출정식이다. 기세를 보여 달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강력히 주장해 수 개표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선 ‘부정선거’를 우려해 사전투표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그런 지지층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일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한 위원장과 254명의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는 5일 일제히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강보현·이가람·전민구 기자

워싱턴 날씨 (°F)

5일(금)	53~39	8일(월)	64~46
6일(토)	51~38	9일(화)	72~52
7일(일)	60~38	10일(수)	73~58

4월 4일(목) 56~4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MATCHINGPOINT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VA 법무부 장관이 전한 한인 학생들 위한 '인생 조언' "희생한 부모님 세대의 지혜, 그것이 유산"

제이슨 미야레즈 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한인 학생들에게 '인생을 위한 조언'을 전했다.

미야레즈 장관은 2일 저녁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미주한인재단 워싱턴(회장 로사 박) 산하 한인학부모회(회장 소피아 강) 주최 멘토링 세미나에 강연자로 나서 쿠바 출신 이민 2세로 현재까지의 '성공담'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했다.

미야레즈 장관은 "6살 때 엄마를 따라 '시민권 신청서'에 갔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면서 "여러분처럼 부모님들이 미국에 이민 온 이민 2세며, 미국의 교육과 혜택을 통해 주 검찰총장에 당선되는 등의 성공을 일궈냈다"고 했다.

또한 "나도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바란다", "소셜미디어, 핸드폰을 끄고 진짜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귀어야 한다"는 등 다소 '꼰대'스러운 조언들도 전해 이날 함께 모인 한인 학부모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1 미야레즈 법무장관이 한인 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2 미야레즈 법무장관이 이날 사회를 맡은 이현민(왼쪽) 군, 박예은 양과 기념촬영 했다

특히 강연에서 미야레즈 장관은 '부모님 세대의 지혜'를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보다 먼저 살았던 이들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여러분보다 먼저 살아간 사람들,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민했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지혜들을 곱씹고 거울 삼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강연회의 사회를 맡기도 한 이현민(맥클린 고교) 군과 박예은(센터빌 고교) 양은 미야레즈 장관의 강연을 "뜻깊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박예은 양은 "법무장관으로 임속하고 틀에 박힌 강연을 할 줄 알았는데,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현민 군은 "영화 '미나리'를 감명 깊게 봤는데, 자신은 희생하고 두 번째 수확을 풍성하게 자랄 수 있

록 뿌리 내리는 '미나리'가 미국에서 일하며 자식들의 뒷바라지 해 주는 부모님들과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군은 "법무장관님의 강연을 들으며 이 생각을 다시금 곱씹었고, 우리 세대가 이제 성장과 번영,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세용 기자

메릴랜드한인회 38대 회장단 취임식

메릴랜드 한인회의 38대 회장단, 안수화(사진 위)회장과 김영후(아래)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오늘(4일) 메릴랜드 클락스빌 소재 텐옥스 연회장에서 열렸다.



37대 회장단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되는 오늘 행사에 대해 안 회장은 "51년 역사를 지닌 한인회가 또다시 새로운 반세기를 향해 나아간다"며 "한인사회에 희망을 불어넣고, 감동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한인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차세대의 한국문화 체험, 권익옹호, 주류사회와의 교류 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장소: 5000 Signal Bell Ln, Clarksville, MD 김윤미 기자

1면 '호건 때문에'에서 이어집니다 호건 주지사는 당선된 후 톨로드 요금을 인하하는 등, 인기 연합적 정책을 이어나가 높은 인기를 구가했으나, 결국 차기 행정부에 엄청난 재정난을 안기고 말았다.

퍼거슨 의장은 "우리가 세금을 인상할 경우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호건 전 주지사가 또다시 승리한다"면서 "이 문제로 민주당이 5대49 우위를 보이고 있는 연방상원의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하원의원 민주당 지도부는 "유권자들은 연방상원 선거에 연방 이슈로 후보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 40억 달러 이상의 세금 및 비용 인상 패키지 예산법안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의 연방상원의원 예비경선에 안젤라 울소브룩스 프린스조지스 카운티 군수와 데이빗 트론 연방하원의원이 도전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결과 호건 전 주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는 모두 오차범위 내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재 기자

"시민권 신청 가이드라인 변경됐어요"

'함께센터'

27일(토), 시민권 클리닉

아시아 이민자 권익단체 '함께센터'가 오는 27일(토),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애난데일 워싱턴새한장로교회에서 '시민권클리닉'을 개최한다.

이번 시민권 클리닉은 미 연방 이민국(USCIS)이 지난 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시민권 신청서 비용을 725불에서 760불로 인상하고 시민권 신청비 완전 면제 또는 부분 면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바뀐 시점에 개최돼 한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법 전문 로펌



(BAL)의 이민변호사들과 훈련받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과 리뷰에 도움을 준다. 박세정 이민법률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시민권 인터뷰 내용이 바뀌고 신청 비용이 오르기 전에 함께센터에서 제공하는 시민권 신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1면 '범죄예방'에서 이어집니다

성폭행 사건 예방을 위해서 경찰은 낯선 이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위험이 느껴진다면 상대방과 거리를 유지하고, 똑바로 쳐다보고 단호한 목소리로 '노'라고 외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위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차는 되도록 밝은 곳에 하고, 길거리에서도 당연한 모습으로 되도록이면 빠르게 걷는 습관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범죄 예방의 방법으로 차고나 출입문을 항상 잠그고, 밤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고 예시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패 어택스에서 9PM 루틴 운동을 전개중"



이라며 주민들의 호응을 당부했다. 사업체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창문 및 자물쇠 강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명의 한인들도 참석했다. 워싱턴한인연합회 고은정 수석 부회장은 "한인 비즈니스가 집중된 애난데일에 범죄사건이 많아져 걱정스럽다"면서 "한인회와 경찰 당국이 공조해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좋은 선택 - 유지해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자리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비, 9000 SF, VA 환돈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잇머쉬 메릴랜드		그로서리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도장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상가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단독 건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0만불, 6,000 SF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사무실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익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주벽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콘도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 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앤디 김, 예비 유권자 과반 지지

에머슨칼리지·더힐 여론조사



상당수가 김 의원 쪽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스펜서 킴벌 에머슨칼리지 조사 담당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60세

이상 유권자를 사로잡았다”며 “60세 이상 유권자의 64%, 학사 이상 58%가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세 기관은 수뢰 혐의로 기소된 현직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 캠페인에 나설 가상의 상황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메넨데즈의 당선 가능성은 낮았다. 9%만이 무소속으로 나선 메넨데즈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 민주당 후보 49%, 공화당 후보 42%의 응답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다.

다만 킴벌 사무총장은 “이 조사는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들은 무소속의 메넨데즈를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강민혜 기자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사진·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지난 달 26~29일 에머슨칼리지·픽스11·더힐이 예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 수행한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예비 유권자 51%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4일 태미 머피 전 후보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른 반사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머피가 사퇴한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머피는 “네거티브 캠페인 등에 휘말릴 생각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머피가 경선에 참여할 경우 김 의원과 접전을 이룰 것이라 예상이 주를 이뤘지만, 머피가 사퇴한 지금 김 후보는 사실상 유력한 당선자로 꼽히고 있다. 머피의 지지자들

등록률 낮았지만 투표율 역대 최고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로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외선거 유권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미국 내 투표율도 55.3%로 총선 재외선거 도입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약)에 따르면 이번 총선 재외선거(3월 27일~4월 1일)에는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총 9만2923명이 투표에 참여해 62.8%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2012년 제19대 총선 45.7%, 20대 41.4%, 21대 23.8% 이후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 그동안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71~75%)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미국은 등록 재외유권자가 3만3615명으로 해외 국가 중 유권자와 재외투표소(37개)가 가장 많았다. 등록 재외유권자 중 총 1만855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5.3%를 기록했다. 미국 내 재외유권자는 지난 21대 총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현황

	등록 유권자수	투표자수(투표율)
LA	6736명	3880명(57.6%)
뉴욕	5178명	2798명(54%)
시애틀	2357명	1181명(50.1%)
시카고	2792명	1647명(59%)
워싱턴DC	2816명	1492명(53%)
미국	3만3615명	1만8559명(55.3%)
전체	14만7989명	9만2923(62.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재외유권자 상당수가 사실상 8년 만에 미국에서 치러진 총선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총선 투표율은 36.8%였다.

공관별로 재외유권자가 일본대사관(9122명) 다음으로 많은 LA총영사관은 등록 재외유권자 6736명 중 3880명이 참여해 투표율 57.6%를 기록했다. 추가투표소별 투표자수는 LA투표소 2054명, OC투표소 1320명, 샌디

에이고투표소 329명, 애리조나 마리코파 투표소 177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LA지역은 등록유권자 7020명 중 2058명이 투표해 35.7%를 기록했다.

미국 내 주요 공관별 투표율은 시카고 59%, 뉴욕 54%, 워싱턴DC, 53%, 시애틀 50.1%로 나타났다.(표 참조)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재외투표 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A재외선관위 측은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대비 등록률은 낮았지만 등록된 유권자 중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한국으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추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투표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돼 오는 10일 한국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김형재 기자

“상대 전략 읽는 게 재미있죠”

체스 천재 크리스토퍼 유



가장 중요한 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을 읽는 것이다. 그 부분이 체스에 대해 더욱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체스 클럽을 운영하는 ‘매카닉스 인스티튜트’가 주관하는 연례 ‘펠코너 어워드(Falconer Award)’ 대회에 한인 청소년이 우승했다.

매카닉스 인스티튜트는 지난달 4일 한인 크리스토퍼 우진 유(17·프리몬트·사진)군이 2024 펠코너 어워드 대회에서 북가주 18세 미만 부문 1등을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유군은 지난 2023년에도 이 대회 같은 부문에서 1등에 2년 연속 우승자가 됐다. 하지만 2020년 우승까지 더하면 세 번째다.

그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체스의

속하는 성적을 기록해야 주어지는 ‘그랜드마스터(GM)’ 자격을 한인으로는 최초로 얻었다.

체스에 대한 유군의 애정은 6세 때부터 시작됐다.

“엄마의 권유로 1학년 때 방과 후 프로그래밍으로 체스를 접했다”는 유군은 체스에 집중하기 위해 2학년부턴 홈스쿨을 하며 전 세계에서 열리는 체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독일에서 진행된 세계 체스 대회에 출전했으며 이달에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2024 스프링 체스 클래식’, 7월에는 ‘US 주니어 챔피언십’에 도전한다.

유군은 “US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US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꼭 이겨서 챔피언십에 나가고 싶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장연화 기자

과학기술 창업 콘퍼런스 개최

과기협, 20~21일 개최
애틀랜타 옴니호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손용호)는 오는 20, 21일 이틀간 애틀랜타 옴니호텔에서 과학기술 창업 콘퍼런스 ‘STEP-UP 2024’를 개최한다.

‘Science and Technology Entrepreneurship Partners’ Upscale Program의 약자인 STEP-UP은 과학기술 분야의 벤처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올해는 ‘건강 및 기술 혁신가의 역량 강화: 비전과 기업가적 성공 사이의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바이오테크/헬스

스/IT/AI 분야 창업 성공 사례 발표, 스타트업 펀드레이징 노하우, 사회적 기업과 기술, 스타트업 피칭, 한국 정부의 재미 한인 창업 지원, 법률 및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해 다룬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웹사이트(<https://stepup.ksea.org>)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조기 등록은 4월 4일, 최종 등록 마감은 4월 11일이다.

행사 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효율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위해 발표자를 포함하여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의: stepup@ksea.org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Z세대, 용접·배관공 '러시'

비싼 등록금보다 못한 졸업장 학사 따도 좋은 일자리 못 얻어

대학 진학 대신 용접·배관 등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 'Z세대는 어떻게 공구 벨트(각종 공구를 매달 수 있게 만든 허리띠)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젊은 세대의 용접·배관공 등 기술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치솟아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졸업장이 주는 효용 가치는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회적 흐름과 기술직의 상대적으 높은 연봉이 있다. 용접이나 배관 등 업무가 높은 수익을 안겨주면서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라지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과거에는 종합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였지만,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 졸업장을 따도 치열한 경쟁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는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기술직 임금은 나날이 상승해다. 지난해 건설직 신규 직원의 임금은 전년 대비 5.1% 오른 4만8089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분야 종사자 임금 인상률은 2.7%로 3만9520달러에 그쳤다.

급여 분석업체 ADP에 따르면 건설직 신입사원의 연봉 중간값이 회계사,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4년째다. 연봉 인상 속도도 지난해 서비스직(2.7%)보다 2배 가까이 빨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숙련공이 되는 기간인 5년 정도를 버텨내면 연봉이 6자리수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 훈련 칼리지에 등록하는 학생 수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등록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해 2018년 교육 분야 비영리 단체 NSC가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차량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배우는 학생도 각각 23%, 7% 늘었다.

한영혜 기자

공화 "덜레스공항을 트럼프공항으로"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수도 워싱턴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사진)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 가이 로센탈리 의원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덜레스 국제공항의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꾸는 법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주요 공항에 전직 대통령 이름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장 뉴욕 국제공항의 이름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이고, 워싱턴 DC 인근의 또 다른 공항 이름 역시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상태다.

그는 퇴임 직전에 발생한, 미국 민주당의 지지를 잃을 수 없는 흥결을 남긴 극우 지지층의 의회 폭동 사태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WP는 "덜레스 공항의 명칭을 논란의 공화당 대선 후보의 이름으로 개명하는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워싱턴 DC에서 서쪽으로 25마일(약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덜레스 국제 공항은 1962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존 포스터 덜레스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로센탈리 의원은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의 상징으로서 자유와 번영, 힘의 상징인 '도널드 트럼프 국제공항'보다 좋은 이름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조소가 쏟아졌다. 예비계열 스펀버거 하원의원은 "우스꽝스러운 생각"이라고 비판했고, 개리 코넬리 의원은 "91개 혐의(조지아주법원에서 3개 혐의가 기각돼 실제로는 88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이름을 붙이고 싶다면, 감옥 중에서 찾아볼 것을 제안한다"고 조롱했다.

3년내 만기 CRE 대출 2조불 ... 은행 비상

(상업용 부동산)

재용자 시 이자율 치솟을 전망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1일 보도했다.

부동산 자문 및 중개회사 뉴마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2조 달러에 달하며, 현재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돼야 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중 올해에만 9290억 달러의 대출이 상환되거나 재융자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가운데 6700억 달러 정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의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판매를 담당하는 뉴마크의 배리 고신 최고경영자(CEO)는 "은행들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출의 벽'이 미치는 영향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당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활용,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던 사무실과 다가구 주거용 아파트 등의 부실이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고신 CEO는 이와 관련해 "지난 5년간 사무실에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이 라면 누구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월간·1분기 판매 신기록

전기차 판매 호조로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기아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발표된 3월 및 1분기 판매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차 3사는 3월 한 달간 총 15만2295대, 1분기는 37만 9202대를 판매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전년 동기보다 2%가 늘어난 7만6920대를 판매해 역대 3월 월간 판매 신기록을 수립한 데 힘입어 1분기 판매량도 18만4804대로 지난해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며 1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전기차 판매가 지난달 100%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1분기 판매도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다. 친환경차도 35% 증가하며 총 1만1485대를 판매해 전체 월간 실적의 15%를 차지했다.



올해 판매 호조를 보이는 현대 아이오닉 6

모델별로는 아이오닉 5 판매가 58% 늘어난 것을 비롯해 투싼 플러그인(62%)과 하이브리드(48%), 팰리세이드(58%), 코나(29%) 등이 판매 신기록을 견인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도 지난달 5903대로 전년 동월보다 4.4% 늘며 17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1분기 판매량은 1만4777대로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기아는 포르테, 스포티지, 텔루라이드가 각각 1만대 이상 판매되며 총 6만 9472대를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번째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EV9 시판과 함께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대비 151%, 분기 대비 88% 신장세를 기록했다.

모델별로는 스포티지(17%), 카니발(15%), 포르테(13%)가 역대 3월 판매 최고 기록을 세웠으며 쏠렌토도 28%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월간 판매량이 전년보다 2.6%가 감소하며 1월 -1.7%, 2월 -3%에 이어 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1분기 판매도 17만9621대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다.

기아는 EV9을 필두로 뉴욕오토쇼에서 처음 공개된 K4 콤팩트 세단과 상품성 개선 모델로 출시를 앞둔 카니발, K5 등을 앞세워 판매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GM이 1분기 총 59만4233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한 데 반해 일본차들은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결산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결산
달인과 함께하시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무료
상담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 (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트럼프측, 3월에 6천560만불 모금

바이든과 '실탄 격차' 좁히나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보한 지난달에 괄목할만한 선거자금 모금 성과를 거뒀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3월 한 달간 6천56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금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 측 현금 보유고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9천31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3일 전했다.

지난 2월말 트럼프 캠프가 신고한 현금 보유액이 4천190만 달러였다는 점에서 지난달 두드러진 모금 성과를 낸 셈이다.

3월 모금 액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으로서 재선에 도전했던 2020년 3월의 모금액 6천2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대결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모금액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진영은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던 수지 와일스는 "3월 모금액은 전 영역에서 유권자들이 트럼프(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뉴욕에서 민주당 출신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대형 모금행사를 개최해 2천600만 달러를 모은 가운데, 아직 3월 총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전국위는 2월에 총 5천300만 달러를 모금했고, 2월 말 기준으로 1억5천5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비해 선거자금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음을 과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 가는 대선 '실탄' 공급량이 늘어난 것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경쟁을 벌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난달 초 사퇴한 뒤 '공화당 큰손'들이 트럼프 측 지원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징후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공화당의 선거자금 모금 및 배분에 영향력이 큰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지난달 선출된 것도 일정한 효과로 연결됐을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트

럼프 전 대통령은 근래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등에서 지역 후원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기부를 부탁해왔고, 6일에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4천만 달러 이상 모금을 목표로 대형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한편, 뉴욕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재판과 관련해 항소심 진행을 위한 공탁금 납부를 도와준 인물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거래와 연계된 고리대출업을 하는 억만장자 돈 행키(80)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이 보도했다.

행키 그룹 회장인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1억7천500만 달러 상당의 채권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기업을 통해 인수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압류를 모면하게 해줬다.

행키 회장은 WP에 이번 채권 인수가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닌 사업상 거래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적절한 이자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바이든 "최악의 전쟁" 강력비판 이스라엘 구호트럭 폭격에 '분노'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국제 구호단체 차량 폭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별도의 백악관 성명을 통해 "어제 가자지구에서 미국인 1명을 포함해 (국제 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소속 직원 7명이 사망한 것에 격분한 상태이며 비통하다"며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WCK 직원 차량이 공습받은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조사는 반드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다른 원인 없이 저절로 불거진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이스라엘과 관련한 요인이 있다는 책임론도 뒤따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훨씬 더 비극적인 점은 이번 사건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번 전쟁은 구호원들이 얼마나 많이 숨졌느냐는 점으로 따져볼 때 최근 기억에서는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주된 이유



가 여기에 있다"며 "이스라엘이 민간인에게 질실히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구호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내 전쟁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이들은 3만2천명을 넘는다. 국제사회는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민간인들이라는 점에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또한 (가자지구)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이 구호 활동과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토, '트럼프 대비' 최대 1천억불 우크라이나 기금 논의 착수

"제도화된 장기 지원 약속 필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최대 1천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군사자금 조성 논의에 착수했다.

연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외교장관회의 첫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는 다년간 재정적 약속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화된 약속의 틀 안에서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국의) 단발성·자발적 기여 대신 나토 약속에 기초해 장기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해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날 회의에 앞서 이 기금의 규모를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 연합 그룹'(UDCG)에서 이뤄지는 조율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나토 사무총장

작업을 나토가 맡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조율하는 과정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나토 회원국의 개별 지원과, UDCG 협의를 통한 단발성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 대신 지원 공조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나토가 제안한 1천억 달러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나토가 각국의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큰 틀에서 목표 금액을 정한 뒤 각국 경제

규모에 따라 기여를 약속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티나 카민스카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제안된) 기금은 GDP 대비 일정 비율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쿠스 싸흐크나 에스토니아 외교장관은 "모든 동맹이 매년 GDP 대비 0.25%의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나토 회원국 중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 등이 계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해온 만큼 논의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금 조성을 먼저 제안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이날 기금 총액 관련 질문에 "디테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한 것도 이런 이유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후임 선정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클라우스 요한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등 두 명이 다. 현재까지는 뤼터 총리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을 포함해 회원국 90%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세한 분위기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2주전

"미국, 장소 지목해 러에 전달"

미국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공연장에서 테러가 발생하기 2주일 이상 전에 이 공연장을 지목해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 보도했다. 당시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에 있는 크로코스 시티홀 공연장이 테러 공격을 받아 140명 넘게 숨졌다.

이슬람국가(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WP는 이 사안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크로코스 시티홀이 잠재적 테러 표적이라고 러시아 당국자들에게 사전에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경고 의무' 정책에 따라 테러 가능성 정보를 다른 나라와 일상적으로 공유하지만 특정 목표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WP는 전했다. 특정 목표물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미국

의 정보 입수 경로가 드러날 수 있고, 비밀 감시 활동이나 관련 인적 자원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P는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잠재적인 테러 표적 정보를 입수하고도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이 테러 음모를 막기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잠재우는 데 더 큰 관심을 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크로코스 시티홀 공연장에 대한 테러 발생 몇 시간 뒤 러시아 당국에 극단주의 세력의 모스크바 내 대형 테러 가능성을 사전 경고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 정부는 이달 초(3월 초) 모스크바에서 콘서트장을 포함해 대형 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공격 계획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며 "'경고 의무'에 관한 정책에 따라 러시아 당국에도 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4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세금 보고



마감일(4월15일)이 다가옵니다. 필요한 서류를 서둘러 준비 하십시오.

- 세금 신고 연장 및 분할 납부 필요하신 분 상담
- 시니어 수수료 할인 프로그램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상담
- 시니어 주택 세금 면제 상담



G-Tax Consulting GW Inc.
(571) 232-5022

ehyum530@gmail.com
8300 Boone Blvd #500, Vienna, VA 22182

연방 세무사 염은호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54탄

APR. 4th - APR. 11th, 2023

볼맛이 강/력/추/천

실속 가득 • 알뜰 세일

Lotte Plaza Market Big Saving Special



종가집 리얼 김치라면 큰컵(박스)
Real Kimchi Ramen Bowl (Box)

12⁹⁹ \$699
6X140 G



종가집 김치버터 볶음면 큰컵(박스)
Kimchi Butter Stir Fried Ramen Bowl (Box)

12⁹⁹ \$799
6X138 G



청정원 해물라면/미역라면 큰컵(박스)
Ramen Bowl Box (Seafood / Seaweed)

12⁹⁹ \$799
6X140 G



ZER 해바라기유
Sunflower Oil

14⁹⁹ \$999
4L

변동종 오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경제 문제 세계 붙은 바이든·시진핑, 안보는 '관리 모드'

미국과 중국 정상은 2일 105분 간 전화 회담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북한·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 기류 속에서 이뤄진 G2 정상 간의 통화다. 두 사람의 직접 대화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중 정상은 2022년과 지난해 11월 1년 간격으로 대면 회담을 했다. 마지막 통화는 2022년 7월이다. 소통 주기가 빨라진 배경은 대선을 앞둔 미국, 내치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일시적 평화를 위해 서로 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레드라인'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상황을 동시에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유럽과 대서양 전체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

려"를 직접 제기했다. 또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는 이란을 배후에 둔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을 억제하는데 시 주석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의 법치와 항행의 자유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곳은 전쟁 중이거나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대선을 앞둔 바이든의 레드라인은 중국의 확전 개입이란 의미가 된다.

시 주석은 아예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의 첫 번째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대만독립" 세력의 분열 활동과 외부 세력의 격려와 지지를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관영매체 신화사는 시 주석

미·중 정상 5개월만에 105분 통화 바이든 '첨단기술 수출 통제' 강조 시진핑 "중국 발전 막으면 좌시안해" 대만 문제엔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 "하나의 중국 재확인" "성과 있었다"



바이든 시진핑

의 발언을 "강한 경고"라고 표현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

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만의 지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화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 체제를 바꾸지 않으며,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강화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며 대만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회담의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반면 선거와 경제 회복을 위해 양국 모두 양보하기 힘든 사안들에선 이견이 노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미국 기술이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대중(對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과 비시장적 경제관행을 거론했다.

대선 이슈로 부상한 영상 공유 앱 '틱톡' 문제도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금지가 아닌 매각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에 미국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상태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 경제 조치에 대해 "만일 미국이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이 정당하게 발전할 권리를 박탈한다면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를 테이블 위에 직접 올려놓으면서 러시아와 급속하게 밀착하고 있는 북한 관련 이슈가 북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압박 카드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베이징·강태화·신경진 특파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2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AP=연합뉴스]

러시아, 한국 독자제재에 "비우호적 조치... 대응할 것"

“러·북 협력, 국제법 위배 안 돼” 양국 군사물자 거래 의혹 일축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對) 러시아 제재를 '비우호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러시아는 한국의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제재에 대해, 우리는 늘 그래왔듯 답을 줄 것"이라며 "불법적인 제재 부과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전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 국적의 선박·기관·개인만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자하로바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모스크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군수물자 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나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검토=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약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4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논의안을 제안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 그룹(UDCG)'의 주도권을 나토가 넘겨받자고도 제안했다. 박형수 기자

"작년 15개주 중국인 토지 구매 제한...20여개주 올해 추진"

공화 지역서 안보 우려로 입법

미국에서 갈수록 많은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막으려고 한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0여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고 있다. 작년에 15개 주가 외국인의 토지 보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점을 고려하면 미국 총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이 이런 법을 이미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주는 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런 법은 보통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의 토지 소유도 제한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고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중국과 '경제 전쟁'을 대선 정점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주정부의 공화당도 이런 기류에 편승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작년 2월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에서 발견된 이후 중국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측면도 있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티 노우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지난달 하원 농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서 "그들은 우리의 식량 공급망 전체를 사들이고 있으며 미국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면 그것은 국가 안보 이슈"라고 말했다.

노우 주지사는 지난달 사우스다코타에서 중국 등 6개 국가의 농지 구매를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중국의 토지 구매를 주 단위에서 제한하려는 이들은 연방 정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토지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



일리노이주의 농지

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그러나 CFIUS는 특정 공항과 항구, 군사시설 주변의 토지 구매만 규제할 수 있어 이 문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 가결되지는 않았다.

폴리티코는 2021년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농지의 3.1%만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토지 보유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런 입법은 과잉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캐나다와 네덜란드로 각각 0.97%, 0.37%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0.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인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너무 넓게 정의해 정치, 무역, 투자 현안을 정치화하면 미국의 시장 환경에 대한 국제 신뢰가 약해진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중국인의 토지 보유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중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지난달 농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치료가 질병보다 나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전역에서 10여개의 법안이 중국 국적자를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공산당과 관련됐는지, 토지 보유가 민감한 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지와 상관 없이 그러고 있다"고 지적했다.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chocpa@gmail.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 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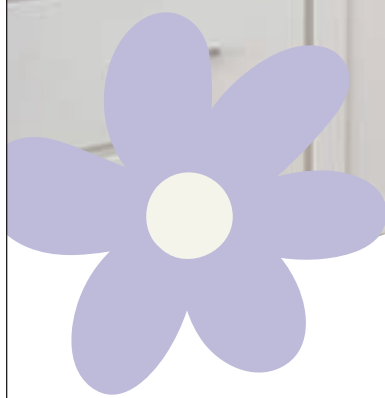
센터빌/챌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코리아에서 3년, 싱가포르에서 4년, 워싱턴에서 10년 경력 / 센터빌/챌들리/인어클리닉+MD와 챌들리/챌들리에서 각각 5년 경력

스프링

플링

OPE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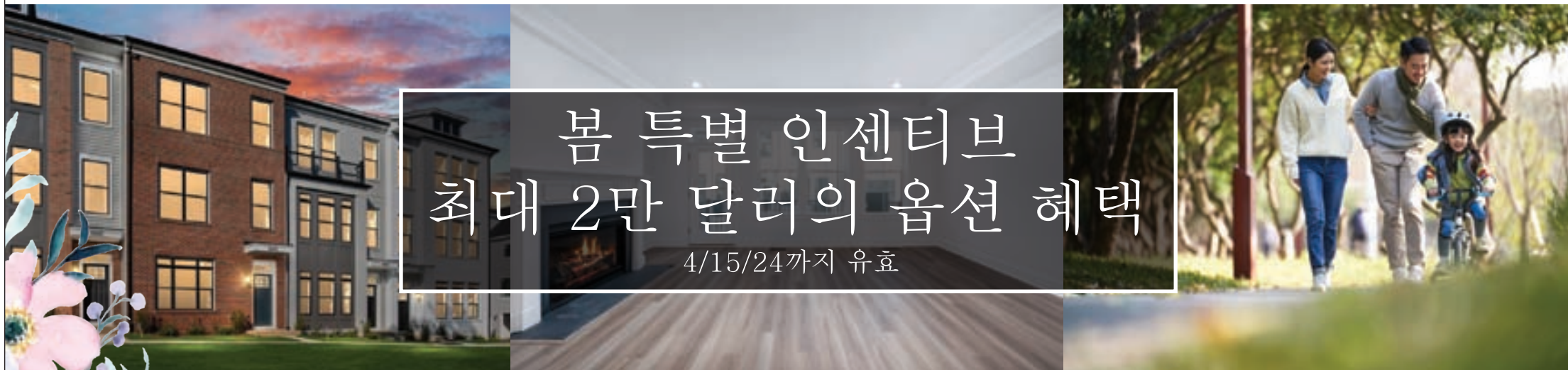


더 타운스 앳 리틀 리버 크로싱

4월 13일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1시

7401 Rocky Creek Ter,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버지니아 주)

리틀 리버 크로싱의 타운스에서 열리는 스프링 플링 오픈 하우스에 참여하세요! 아름답게 꾸며진 타운하우스를 둘러보고, 테이스트 오브 아시아 푸드 트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아이들을 위한 플라워 크래프트 바를 즐겨보세요!



봄 특별 인센티브 최대 2만 달러의 옵션 혜택 4/15/24까지 유효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세요:

Jonathan Horne | 571-609-8809
jonathan@christophercompanies.com



웹사이트 보기:

christophercompanies.com/TLRC
or scan:



QUALITY BY DESIGN

christophercompanies.com

스캔 및 RSVP



*선호하는 대출 기관을 이용할 경우 최대 2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옵션 또는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3/28/24 - 4/15/24 사이에 계약이 비준된 일부 주택에 한해 제공됩니다. 4/15/24에만 제공됩니다. 다른 오피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 구조는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 관련 정보 인센티브, 고도, 평면도 및 이용 가능 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컴퍼니즈는 주택 기회 균등 정책을 준수하는 신규 주택 건설업체입니다.

원폭 32개 위력 ... "1999년 대지진 악몽 떠올라"

최소 9명 사망... 여진만 200회 발생 3 TSMC 반도체 생산라인 한때 중단

일 오전 7시58분(현지시간) 대만 동부 화롄(花蓮)현 화롄시 쉬안위안(軒轅)로. 교차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중에 커다란 굉음이 나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력한 진동이 발생하자 도로 옆에 자리한 9층 높이의 텐왕성(天王星) 빌딩 1층 부분이 먼지를 쫓기며 붕괴했다. 이 여파로 건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60도 정도 한쪽으로 기울어 내렸다. 놀란 행인과 운전자들은 혼비백산해 대피했다. 무너진 빌딩에 갇힌 22명의 시민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여성 강(康)은 숨진 채 발견됐다. 텐왕성 건물의 지진 피해 모습은 대만 시민들이 X(트위터) 등 SNS에 올린 영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만 현지 매체인 연합보가 전한 화롄 강진 당시 상황이다. 세종시 인구(38만 명)와 비슷한 규모(31만 명)가 거주하는 화롄현에서 이날 오전 7시58분 규모 7.2 강진이 발생했다고 대만 중앙기상국이 전했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조사국이 측정한 규모는 7.4다. 진앙은 북위 23.77도, 동경 121.67도로 화롄현에서 남남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지역이다. 지진의 발생 깊이는 15.5km다. 쿼카이윈 전 중앙기상국 지진예측센터장은 "이번 지진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원자폭탄 32개와 맞먹는 위력"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대응센터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에

발생한 강진으로 이날 오후 10시까지 최소 9명이 숨지고 963명이 다쳤다. 주택은 약 190채가 파손됐다. 이날 오후 현재 고립된 137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소방당국이 화롄시의 한 터널에 갇혀 있던 70명을 대피시켰다고 밝혔다"며 "이 중엔 독일인 2명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1999년 9월 21일 중부 난터우(南投)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921 대지진' 이후 25년 만에 대만에서 일어난 강진이다. 당시엔 심야에 발생한 강진으로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진원지와 가까운 동부 화롄현에 집중됐다. 수도 타이베이(臺北)·신베이(新北)·타오위안(桃園) 등도 심하게 흔들렸다. 대만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타오위안 공항 식당에서 만난 직원 장(張)은 "오전에 6~7회 강한 지진을 느꼈다"며 "921 대지진 당시의 악몽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신베이시의 한 시민은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며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921 대지진보다 더 끔찍했다"고 대만 EBC방송에 말했다. 이날 오전 타이베이에서 남동부 타이둥 쓰브행 열차가 화롄 지역을 지나는 중에 지진을 맞은 홍(洪)은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주변의 산이 무너져 내렸다"며 "휴대전화에 지진과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서 기차가 쓰나미에 삼켜질까 봐 무서웠다. 재난 영화 같았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기차역은 화롄행 열차 운행이 막

하면서 예매표를 반환하려는 줄이 길었다. 역사에는 오늘 사용하지 못한 열차표를 1년 내 인제라도 환불한다는 안내판이 내걸렸다. 지하철 입구에는 지진 영향으로 열차가 연착할 수 있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안내문도 보였다. 화롄이 고향이라는 엔(鵬)은 "진원이 깊어 7.2 진도에 비해 피해가 적었다"며 "빨리 열차 운행이 재개돼 대피한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삼리(三立)신문 기자는 "타이베이는 진도 5까지 흔들렸지만 큰 피해는 없어 다행"이라며 "교외 선로가 파손돼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82년 건축법을 강화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99년 강진 이후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건물 대다수가 완전히 붕괴하는 상황을 맞지는 않았다. 화롄시의 텐왕성 빌딩처럼 기울어지지만 허거나, 멸절된 모습을 보인 건물도 많았다. AFP통신은 "엄격한 건축 규제와 광범위한 재난 안전의식 덕분에 큰 재앙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지진으로 인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의 신주(新竹) 공장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대피했다가 복귀했다. 이로 인해 일부 반도체 생산이 한동안 중단됐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날 장 초반 약 1.5% 떨어졌지만 생산 재개 소식이 나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자칫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신경진 특파원



대만에서 3일 발생한 규모 7.2의 강진으로 화롄시의 한 터널 앞 도로가 붕괴돼 낭떠러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위성도시 중 하나인 신베이에서도 건물들이 붕괴돼, 구조대원들이 건물 더미 위에서 생존자들의 탈출을 돕고 있다. [신화·AFP·연합뉴스]

<p>화성포-16나형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p> <p>화성포-16나형 1 19.1m 2 3000~5500km 극초음속 미사일 3 급격한 궤도변경비행</p> <p>화성-12형 1 16~17m 2 6000km 3 미국형 탐타격 가능</p> <p>1: 길이(추정) 2: 사거리(추정) 3: 특성 자료: 북한 관영매체 보도, 합동참모본부 발표, 국방백서 참조</p>	<p>KN-23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p> <p>KN-23 1 4.5~5.6m 2 600km 이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3 급강하·홀업(oull-up) 기동</p> <p>KN-24 1 3~4m 2 400km 이상 북한판 에이태킴스 3 급강하·홀업(oull-up) 기동</p> <p>KN-25 1 6.5~7m 2 400km 이상 초대형방사포 3 기습발사</p>	<p>북극성-3형 북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p> <p>KN-11북극성 1호 1 8.9m 2 1300km</p> <p>KN-26북극성-3형 1 7~10m 2 2000km 이상</p> <p>북극성-5호 1 10~11m 2 미상</p> <p>공통 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해안 근접발사, 은-엄폐 유리</p>	<p>화성-18형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p> <p>화성-15형 1 22m 2 1만3000km 3 미 동부타격 가능(추정)</p> <p>화성-17형 1 24~26m 2 1만5000km 3 미 전역타격·다탄두 탑재 가능(추정)</p> <p>화성-18형 1 25m 2 1만5000km 3 미 전역타격·다탄두 탑재 가능(추정)</p>	<p>불화살-3-31형 북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p> <p>화살-1형 1 약 6m 이상 2 1500km</p> <p>화살-2형 1 6m 이상 2 2000km</p> <p>불화살-3-31형 1 미상 2 최대 2000km</p> <p>공통 3 50~100m의 낮은 고도로 원거리에서 목표물 정밀 타격</p>
---	---	---	---	---

북한이 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뒤 "모든 미사일들의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군 당국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고체연료로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쏘는 등 기술적으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급격한 궤도 변경 같은 고난이도 성능은 달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를 장착한 새형의 중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

북 "모든 미사일 핵무기화·고체연료 실현" 군 "일부는 과장"

나형'의 첫 시험발사를 전날 현지 지도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어났다"며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전술·작전급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KN-23-24-25, 전략급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등에 이어 중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기존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투입해 핵탄두 카트리지인 화산-31형을 탑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화성포-16나형의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3000~5500km) 급이라 면 이론적으로 광은 물론 알래스카도 겨냥할 수 있는 전략급 미사일에 해당한다. 여기에 고체연료까지 적용되면 연료를 실은 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지하 시설에 숨겨놨다가 유사시 꺼내 즉각 발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밝혔다. 초보 단계의 기술 수준 달성을 완성형처럼 표현해 위협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통상 극초음속 미사일의 '극초음속'은 활공체가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마하 5(6120km) 이상의 속도로 활강하는 방식을 뜻한다. 특히 활강단계에서 이 갈

은 속도로 물수제비 빙기듯 통통 여러 차례 풀업 기동을 하거나 좌우로 방향도 틀 수 있어 방어하는 입장에선 공포의 대상이다.

북한은 이날 "사거리를 1000km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영교·이근평·이유정 기자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역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통증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들랜드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타리 지역]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판매 \$45
유럽유심 판매 \$50

배송공고 버스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Korea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2024년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아낌없이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 1차 4/16-4/26 **마감입박** 2차 6/18-6/28 (영어가이드)
- 3차 9/24-10/4 4차 10/15-10/25 **마감**
-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거제
 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선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34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부산 그랜드조선
 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인 부산

고국 1~5차 모두 제주 빼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을선) 1차 5/18-5/29 3차 11/9-11/20
 \$3090+항공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2차 5/21-6/1 4차 11/12-11/23
 \$3590+항공 \$3590+항공

연합상품

-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금출발**
-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 3박 4일 **동경** \$999+항공
-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TMCI Total Medicare Connection Institute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내 피부에 젊음과 활기를 가져다줄

뷰티관광

GLOVI 글로벌비상외과 관리와 성형을 함께 올해라 100만원~ 눈트입 160만원

W MEDI WIN 국내 최고의 병원 제휴! 비노기과, 안과 치과, 한방병원 등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맛포차, 플로세움소, 파티아 아시아,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레킹, 약어농장 백민관아유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광안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드테스, 파동 아시아 피피섬, 잊혀진 사원 코끼리 트레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데미파크, 호치민영모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분강 일본내원고, 갠가사당, 풍물의집 광조관, 바나함국립공원 후애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허계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협곡, 화려 칠성단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촌, 아류해양 국립공원, 자우만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랜드스, 핸드스 웨이더 브릿지, 하저레인, 부기스개러시, 머라이언공원, 차이나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비티

메모리얼 데이 특선

- 천섬, 몬트리올 퀘벡 레이크조지 3박 4일 5/24-5/27 \$899
-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5/25-5/27 \$650
- 롱우드 가든 당일투어 5/25 \$159

토요 특선 당일투어

- 네슈럴 브릿지+사파리 5월 4일 \$125
- NY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센트럴 파크 6월 22일 \$99
- 노퍽 보타니컬 가든 7월 20일 \$109

성극 대니엘 \$199 5/16 5/30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 미동부** 4월 22일 당일투어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레츠버그/뉴욕
5박 6일 \$1350
- 뉴욕** 4월 22일 당일투어
해심적인 동부 명소만 쏙쏙
뉴욕
나이아가라
2박 3일 \$650
- 뉴욕 브루클린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 뉴욕** 1박 2일 \$399
-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 미서부 일주** 서부지역의 주요 도시들과 3대 캐년까지 일출 여행 8박 9일 \$1450+항공
-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 캐나다 록키** 4박 5일 \$10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정부 대화 요청에... 의협 “환영할 일” 일각 “증원 백지화부터”

전공의들은 별도 입장없이 잠행 정부 “만남 불발 아니다, 접촉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공의들과 만나겠다고 대화 의지를 보인 것을 놓고 의료계는 3일에도 감론을박을 이어 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만남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무의미하다”며 대통령과의 만남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침묵했다.

정부는 만남을 재차 요청했다. 이 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화

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윤정(사진) 홍보위원장이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안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직후, 대통령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화를 제안했다.

의료계는 “의제 없이 만나는 건 무의미하다” “총선 전까지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 “최소한 2000명 전면 백지화와 책임자 파면이 선행돼야 한다” 등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쯤에서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교수비대위)는 이날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3일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제주시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건강이 악화해 입원한 이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인 조성원 과장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비대위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할 일

이라면서도 “말(대통령의 대화 제안)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현재 진행되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이날도 잠행 이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만남이 불발됐다거나 전공의들이 제안을 거절한 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공의들과 꾸준히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남을 호소했던 전의교협 비대위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장 발언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을 수용하란 말이나”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면 들리리만 선다” 등 비판이 들끓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통화에서 “조 위원장의 개인적인 소회가 전의교협 입장인 것처럼 나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수험생과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황수연·남수현 기자

의사 집단행동에... 간호사·병원직원 ‘무급휴가’ 압박 커진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단축 근무에 들어가면서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남은 직원들의 희생을 커지고 있다. 이들 병원은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고, 직원 무급휴가 등을 시작했다. 노조는 “경영상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고 반발했다.

‘빅5’ 병원 중 지난해 중순 가장 먼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간 연세의료원(세브란스병원 등)과 서울아산병원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두 병원은 간호사 등 직원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

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원 무급휴가 기간을 최대 한 달에서 100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직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한다. 이경민 보건의료노조 서울아산병원 지부장은 “무급휴가를 100일로 늘렸으니까, 그다음은 무급휴직을 언급할 게 뻔하다”며 “휴직은 몇 개월 가야 할 텐데 그동안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조 위원장은 “병원 측은 무급휴가가 자율이라고 하

지만, 중간관리자는 면담에서 무언의 압박을 한다”며 “이런 압박을 받고 싶지 않아 무급휴가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선 현재까지 2000명 정도가 무급휴가를 갔다.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병원 손실을 충당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19개 수련병원 노조는 지난 1일 합동 기자회견에서 “각 의료기관은 병원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가장한 고통 ‘전가’를 하지 말고 노사 합의를 거쳐 비상사태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병원 경영진이 의료진 이탈을 막으려는 노력 없이 비상경영에 나선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이경민 지부장은 “전공의·교수를 빨리 설득해 돌아오게 하는 게 병원의 역할인데, 나 몰라라 한다”고 토로했다. 세브란스병원 권미경 위원장은 “비상경영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

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 병원 경영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장들은 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예비비(1285억원), 건강보험 재정(3764억원) 등 5000억원 넘게 투입했고, 지난달 28일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한 차례 연장했다.

문상혁 기자

총선 최대 화두 된 물가... 고물가 땀 정권 심판론 통한다?

‘물가 상황판’만 놓고 보면 올해 총선은 2012년 치른 19대 총선과 닮았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고물가 부담에 시달렸다. 직전 해인 2011년 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했다. 선거 직전 1분기 물가 상승률도 3.0%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2%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야당은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들고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가 올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일명 ‘MB 물가 실명제’를 추진한 배경이다. 선거 결과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52석,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확보해 여당이 승리가 돌아갔다. 차기 대선 주자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여당 쇄신이 먹혀들었다. ‘고물가 심판론’이 선거 승패를 가른 결정적 변수는 아니었던 셈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민생 최대 화두는 역시 물가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물가=정권 심판’이 선거에서 통했느냐는 다른 얘기다. 중앙일보가 2000년 이후 치른 17대부터 21대 총선까지 최근 20년간 선거 결과와 해당 총선 직전(1분기) 물가상승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높다고

야당을 찍고, 물가가 낮다고 여당을 찍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정치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물가가 높다”는 기준은 3%를 넘겼을 때다.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치른 17대(2004년) 총선 당시 1분기 물가는 3.2%

물가와 총선 결과	단위: % 1분기 기준		
구분	정부	물가상승률	승리당
17대(2004)	노무현	3.2	열린우리당(여)
18대(2008)	이명박	3.8	한나라당(여)
19대(2012)	이명박	3.0	새누리당(여)
20대(2016)	박근혜	0.9	더불어민주당(야)
21대(2020)	문재인	1.0	더불어민주당(야)
22대(2024)	윤석열	3.0	?

자료: 통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였다. 총선 결과는 여당(열린우리당) 압승이었다. 당시 야당(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역풍을 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18대(2008년) 총선 당시 1분기 물가는 3.8%였다. 결과는 여당(한나라당) 승리였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 성격이 컸다.

박근혜 정부 때 치른 20대(2016년) 총선 1분기 물가는 0.9%로 낮았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잘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는 야당 승리였다. 선거 직전 벌어진 공천 파동 영향이 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2020년) 총선 1분기 물가는 1.0%였다. 여당이 승리해 분석 대상 총선 중에선 유일하게 물가와 선거 결과 간 상관관계가 있었던 해로 나타났다.

물가가 투표할 때 중요한 변수지만,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아니란 해석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항상 높다고 느끼지, 특별히 낮다고 느끼기 어렵다”며 “물가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정권 심판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특성상 정부 철학과 정책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동산과 다르다”며 “물가를 관리한다는 말 자체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금리와 외부 변수(전쟁 등)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대비) 경제 실정에 대해 매서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물가가 화제인 건 경제성장률·실업률 등 지표보다 훨씬 체감하기 쉬운 지표라서다.

김기환·이우림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빌딩 3층

바디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후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하주동시 미 전액 무료 딜러서비스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매년대입 **703-354-1515**
 2층소통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4월 스페셜 SALE

안마의자 할부도 건강마을이 하면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48개월 특별한 비용으로 할부 구매하세요.

바디프렌드 글로벌 3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세계가 인정하는 바디프렌드를 경험하세요!

이제 전신 마사지는 물론 **브레인 마사지가까지!**
 MENTAL MASSAGE **브레인마사지 특허**

하루의 피로가 **짜~악** 구석구석 뭉친 근육이 **짜~악** 날아갈 것 같은 개운한 하루! 큰맘 먹고 사길 참 잘했어요!

자신 있게 선보이는 신제품 품격 있는 메디케어 안마의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보세요.

Pharaoh S II BLACK EDITION
파라오 S2
 블랙 에디션의 특별함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기능이 더해져 더욱 품격 있는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팬텀2 **캘리스2**

첫 발을 뗐다 마침내 자유 팬텀 로보!

PHANTOM ROVO
 새로운 기술 · 새로운 움직임 · 새로운 재미
 관절에 문제 일으킨 분들에게 마사지와 자전거기어 운동을 동시에!

안마의자인가 의료가기인가
 바디프렌드의 전신마사지 기술로 안마의자, 의료가기가 된다!

PHANTOM Medical Care

5 YEAR WARRANTY **레전드 마사지체어의 진화! 파라오S2 블랙에디션**

KOREA 세계동물생물학 박사기갑협회

어떤 공간에도 부담 없이 어우러지는 팔콘

더욱 완벽하게 진화한 바디프렌드만의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좌우 다리 독립구동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로보워킹으로 스트레칭 효과 UP!

- 새로워진 8가지 로보케어워킹 프로그램
- 손지압 패드
- 최적화된 XD 마사지 모듈
- 강화된 안전센서
-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콕다이얼
- 3단계 온열
- 24가지 다양한 안마 프로그램
- 자동 체형 인식
- 묵직한 에어백
- 다리길이 자동 조절

내 집에 쏙 내 몸에 쏙~

지금껏 닿지 못했던 코어근육 스트레칭 효과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Compact & Perfect
헬스케어로봇 팔콘 \$4,999

BODYFRIEND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판매로 신속히 알아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뉴 프리미엄 4D 안마의자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휴표 휴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를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천연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명품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원천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버지니아 워싱턴 워런티 지정 대리점

월턴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리오스산 히노키 원목
-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발효과
- 5 3중 고온 안전처리
-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치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영웅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돌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임정기념 세일 \$1,799 \$1,499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 3 간단 편리한 작동
- 4 우수한 안전성

건식 반신욕기 7가지 360도 피톤치드, 360도~

실드 라이프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크세사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세할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겸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소량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득표 도움 안돼”... 여야 후보 341명, 윤석열·이재명 사진 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김한규(제주=왼쪽), 위성곤(서귀포) 후보와 함께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본지, 선거공보물 전수조사
여당 후보 71%, 민주당 후보 64%
‘친윤·친명 마케팅’ 않고 거리두기
비호감 정치가 선거공식 바뀌

22대 총선 선거공보물 전수분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사진 없는 후보	71.2% 254명 중 181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없는 후보	63.7% 251명 중 160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3일 강원도 춘천시 명동길에서 김혜란(춘천-철원-화천-양구갑-왼쪽)·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

전국 254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505명(민주당 3곳 무공천)의 선거 공보물만 보면 답은 ‘그렇다’에 가깝다. 후보들이 공보물의 초점을 막판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하는 중도층 공략에 두면서 택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중앙일보가 3일 전국에 배포된 양당 지역구 후보의 선거 공보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야 후보 505명 중 341명(67.5%)이 이른바 ‘친윤·친명 마케팅’을 벌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후보 254명 중 윤 대통령 사진을 뺐 후보가 181명(71.2%), 민주당 후보 251명 중 이 대

표 사진을 사용하지 않은 후보가 160명(63.7%)에 달했다. 반대 진영 지도자에 대한 혐오에 기댄 극단적 선거전이 빛은 22대 총선의 풍경이다.

①의도적 ‘디커플링’=강남 3구인 강남·서초·송파 8개 지역구에 나선 여당 후보 중 윤 대통령 사진을 실은 건 김근식(송파병) 후보뿐이다. 날긴 했지만 사진이 보일 듯 말 듯한 경우도 있다. 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 권영세(서울 용산) 후보는 5페이지 하단에 윤 대통령 사진을 작게 실었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역임한 박민식(서울 강서을) 후보도 4페이지 하단에 옆모습만 담았다.

과거엔 ‘박근혜 마케팅’ ‘문재인 마케팅’이 여당 후보의 승리 공식이었다.

정부가 자신의 공약을 뒷받침할 거라는 기대를 유권자들에게 심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서다. 민주당 현역 의원 41명 중 34명(82.9%)이 지난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공보물에 배치했다. 민주당 경선에선 필수였던 ‘이재명 마케팅’도 사라졌다. 민주당 부산·경남 후보 34명의 선거 공보물에는 이 대표 사진이 딱 한 장 사용됐고 제주에선 전무했다. 이 대표의 본거지인 경기도에서도 후보 60명 중 30명만 사진을 썼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마케팅’ 중이지만 한 위원장 사진을 공보물에 쓴 후보는 3명 중 2명(73.4%)에 그쳤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후보는 “각 진영 지도자들의 비호감도가 높아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②오세훈·김동연은 인기=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빈자리를 채운 건 광역단체장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서 28개 선거구(58.3%) 공보물에 등장해 8번 나온 윤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김기남(경기 광명갑)·나태근(경기 구리) 등 경기·인천 후보 15명도 ▶서울 편입 ▶지하철 개통 공약과 관련해 오 시장과의 면담 사진을 썼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인기였다. 김승원(경기 수원갑)·최민희(경기 남양주갑)·문정복(경기 시흥갑) 등은 김 지사 사진을 넣어 경기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도 이 대

표 대신 김 지사 사진을 썼다.

③이재용·바이든에 ‘입틀막’도 등장=부산 중·영도의 조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찍은 사진을 4페이지 상단에 썼다.

경남 양산을 김태호 후보는 ‘양산에서 정치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문구 아래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약속하는 사진을 배치했다.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후보 19명이 이른바 ‘입틀막 사건’ 사진을 공보물에 실었다. 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퇴장당한 사건을 정권심판론 환기에 사용한 것이다. 김정재 기자

당대표가 밀린 총선 검색량... 이재명 앞에 조국, 한동훈 앞에 윤 대통령

(구글트렌드 분석)

구글트렌드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3월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조 대표의 검색량이 56으로 가장 높았다. 이 대표(41), 윤 대통령(31), 한 위원장(29)이 그 뒤를 이었다.

조 대표의 검색량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줄곧 1위를 기록했다. 구글트렌드는 특정 기간 특정 대상의 구글 검색량을 1~100 사이로 수치화한다. 야권에선 조 대표가 창당을 선언한 2월 13일을 기점으로 조 대표 검색량이 점차 이 대표를 상회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처음 공개한 지난달 15일 조 대표 검색량이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비교하면 3월 중 18일 동안 윤 대통령의 검색량이 한 위원장보다 많았다.

특히 지난달 20~23일 윤 대통령의 검색량이 많았는데, ‘대과 발언’(18일), 황

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사퇴(20일), 이종섭 전 주대사 귀국(21일) 등이 맞물린 시기였다.

검색량 추이만 놓고 보면,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는 흐려지는 모습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지

난달 ‘황상무-이종섭 리스크’가 여권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며 “야권에선 정권심판론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보다 오히려 조국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는 추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창훈 기자

‘PK 구애’ 하던 조국, 격전지 동작을 찾아 나경원 공격

“빠루로 기소됐는데 4년째 재판 중”

최근 PK(부산·경남) 구애에 집중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동작을로 보복을 뉘었다.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창출과 2년간의 실정에 책임 있는(후보의) 지역을 가겠다”면서다. 동작용은 류삼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격전지다. 정치권에선 “지역구에선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란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표는 동작용 유세에 돌입하면서 “4월 10일 이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있는 어떤 후보는 ‘빠루(쇠 자렛대)’로 국회선진화법(위반)으로 기소됐는데 4년째 1심 재판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며 나 후보를 겨냥했다. 나 후보는 2019년 4월 원내대표 시절 선거법·공수처법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저지를 진두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국

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월 부산민주공원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세 차례 나 더 부산을 찾는 등 PK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면 유세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고향에 온 만큼 부산 사투리로 경고한다. 이제 고마치아라 마(그만하라는 뜻)”라고 했다. 지난 1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각 세리 마!”라고 직격했다. “때리고 싶다”는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다.

성지원 기자



윤 대통령 만난 ‘104세 철학자’ 김형석 윤석열 대통령이 3일 104세 원로 철학자인 김형석 원세대 명예교수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뒤 집무실, 정상회담 등을 둘러보며 그간 활동을 김 명예교수에게 소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유자를 위한
케어 크레딧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응급환자 Emergency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늘봄학교’ 도입 한달, 초등 1학년 74%가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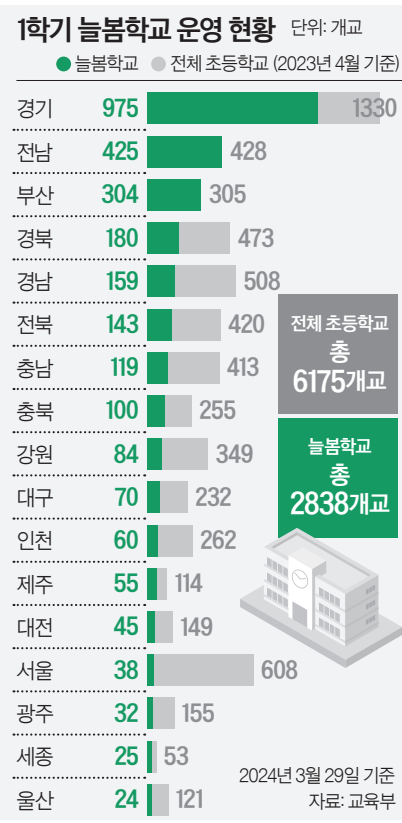
(13.5만명)

오전 7시~오후 8시 교육·돌봄
전체 초등학교의 46%가 운영 참여
운영비용 부산·전남 100% 서울 6%
지역격차 여전... 인력 수급도 숙제

올해 1학기에 도입된 ‘늘봄학교’에 초등 학교 1학년 학생 13만5599명이 참여했다. 1학년생 전체(18만2493명)의 74.3%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3월 29일 기준)는 2838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46%라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시작됐고 2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개학 직후인 지난달 4일(12만1758명)보다 1만3841명 늘었고 대기자는 없다고 설



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했다. 학기 초에는 대기자가 524명 있었으나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100%, 경기도 초등학교의 73.3%가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나머지 17개 시도의 운영 비율은 절반 이하였고, 서울이 6.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은 2학기 전면 실시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며 “먼저 늘봄을 시작한 학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여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추가 신청을 받았고 다음 달 1일부터 총 151개교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는 총 608개교다.

방학 중 운영과 관련,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특별지원관은 “방학 중 운

영을 위한 예산이 이미 시도교육청에 교부됐다”며 “다만 기존 고용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 문제는 간편식이나 간식 제공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늘봄 무료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늘면서, 매달 20만원가량 지출하는 방과후교실 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동일 시간에 학원에 간다고 가정하면 절감비용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늘봄 강사 등의 추가 채용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늘봄 강사는 1만7197명이며 이 중 81.3%(1만 3973명)가 외부 강사다. 행정안전부는 3934명(기간제 교원 2168명, 행정인력 1466명)으로 학교당 1.3명꼴이다. 일선 학교에선 교사들이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사례가 많아 고용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는 늘봄 강사 5003명 중 41.9%(2097명)가 교원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강사 시급이 6만원으로 교사들이 받는 여타 수당보다 많다 보니 지원자가 꽤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력 부족으로 교사를 늘봄 강사로 투입하다 보니 수업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지난 1월 서울 교사노조 등이 늘봄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향후 늘봄학교의 확산, 정상적 진행에 또 차질이 빚어지면 (교원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 후퇴... 보험료율 15%로 올려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가 “개혁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과 같은 7~8년 늦추는 복수 안을 논의하는 것은 연금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의제속의단 논의를 거쳐 지난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 1기 투표에서 15명의 자문위원 중 10명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을 선호했다”며, 후퇴한 개혁안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 “의제속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뤄졌으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전문가를 배제했다”며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을 추가해 시민 대표단이 학습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오는 13~21일 생방송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이전에 최종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주영 기자



부산에 크루즈 4척 첫 동시 기항 3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3척, 영도구 크루즈터미널에 1척 등 총 4척의 크루즈선이 기항했다. 크루즈선 3척이 부산항에 동시에 들어온 사례는 있었지만, 4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들이 정박한 모습. 송봉근 기자

푸바오와 1354일, 이젠 안녕

‘푸요일’이 사라졌다. 정상급 아이돌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던 판다 푸바오(福宝·2020년생)가 3일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푸요일은 푸바오가 살던 에버랜드가 일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날(월, 금)에 팬들이 붙인 표현이다.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용인 에버랜드 장미원 분수대. 푸바오를 태운 무전동 특수트럭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 판다 아이바오(2013년생)와 함께 푸바오를 돌본 강철원·송영관 사육사가 푸바오를 대신해 관람객들에게 인사했다. 봄비를 맞으며 푸바오를 배웅하던 6000여명의 관람객은 “푸바오 잘

가” “건강하게 지내” 등을 외치며 배웅했다. 강 사육사가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로 시작하는 작별 편지를 낭독하자 소리 내어 우는 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푸바오는 중국 쓰촨성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 위룽선수펑 기지에서 제2의 판생을 시작한다. 강 사육사는 2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푸바오와 중국행을 함께했다. 푸바오는 2020년 7월에 태어나 이날까지 한국에서 1354일을 지냈다. 이전에도 국내에 판다는 있었지만, 푸바오 만큼 인기를 누리던 경우는 없었다. 왜일까.

푸바오는 태어날 때부터 스타였다.



1 지난달 3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푸바오가 일반 관람객에게 마지막으로 공개됐다. 2 봄비가 내렸지만 푸바오를 배웅하기 위해 이날 많은 시민이 함께했다. [AP=연합뉴스·연합뉴스TV 캡처]

국내에서 자연 분만으로 태어난 최초의 자이언트 판다였기에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에도 출생과 성장 과정이 영상으로 대중에게 전해졌다. 유튜브 등 SNS에는 ‘랜선 이모·삼촌’을 자



청하는 팬들이 빠르게 늘었다. 푸바오가 사육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영상은 현재 1599만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푸바오의 인기 덕에 에버랜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재생산됐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인간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이를 대체하는 측면에서 SNS나 유튜브를 통해 푸바오 같은 동물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분석했다.

몰래카메라로 한 남성의 성장 과정이 대중에게 생중계되는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많은 사람이 푸바오가 197g으로 태어나 100kg 넘게 성장하는 모습이 SNS를 통한 공동육아였던 셈이다. 푸바오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까지 생겨 사육사는 푸바오 할부지(강철원·강바오)와 작은 할부지(송영관·송바오)로 불렸다.

천권필·서지원·최모란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우리말 바꾸기

‘멋쩍다’

‘멋쩍은 미소’ ‘멋쩍은 미소’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

‘멋쩍은 미소’가 맞는 말이다. ‘멋쩍다’는 “그들을 다시 보기가 멋쩍었다” “자신의 행동이 멋쩍는지 뒷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등처럼 사용된다.

‘멋쩍다’ 외에 ‘겸연쩍다’ ‘수상쩍다’ 등도 비슷하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적다’로 써야 할지, ‘-쩍다’로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것은 ‘-쩍다’의 어원이 ‘-적다(少)’에서 왔기 때문이다.

이를 구분하려면 어원의 의미, 즉 ‘적다(少)’에서 멀어졌는지를 보면 된다. ‘적다’는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다’를, 어원에서 멀어져 ‘적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으면 ‘-쩍다’를 붙인다.

따라서 재미나 흥미가 거의 없어 심잡다는 뜻을 가진 ‘맛적다’의 경우 발음은 [-쩍다]로 소리 나지만 ‘적다’는 의미가 포함됐기 때문에 ‘맛적다’로 써야 한다. 기력이 약해 힘차게 앞질러 나서는 기운이 없다는 의미의 ‘판기적다’ 역시 같은 이유로 ‘-적다’가 붙는다. 이와 달리 ‘멋쩍다’ ‘겸연쩍다(쑥스럽거나 미안해 어색하다)’ ‘수상쩍다(수상스러운 태도가 있다)’ ‘객쩍다(행동 등이 쓸데없고 심잡다)’ ‘백쩍다(심심하고 재미가 없다)’ 등은 ‘적다’는 어원의 의미에서 멀어졌으므로 ‘-쩍다’를 붙여 써야 바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한인 2세 정치인 지원하자



최인성
LA중앙일보
NET팀장

게다가 흥 이사장이 주머니를 열면 다른 1세대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지금처럼 후보들이 선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더욱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이다.

당장 흥 이사장 같은 인물이 한인사회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런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움직임은 누군가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인을 후원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일부 공연 기획자들은 미국 비자 문제의 편의를 위해 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정 의원에게 기부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리커 라이선스 문제에 대비해 시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다는 사람도 있다.

한인 1세대들이 2세대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인 사회가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세 후보를 왜 지원하느냐는 반응은 이제 자제하면 좋겠다. 심사일만 우리가 한인 후보에게 보이는 관심은 다른 유권자들에게 한인 사회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그것이 예산이든 본선이든 여유가 되는 만큼 지원하자. 그리고 나서 잘못한다면 꾸짖고 고쳐주자. 그것이 지금 1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야 한인 사회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고 정치권 전체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할 것이다. 독자들 모두 11월 결선 무대에 나서는 한인 후보들에게 적은 액수라도 꼭 지원하길 기대한다.

자연스러운 현상기긴 하지만 이제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의 대부분은 2세대이다. 한인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2세대들이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1960~80년대 성인인 된 후 미국에 온 1세대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눈앞에 둔 경우가 많다.

한인 2세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계에 진출하려는 2세대들이 많아진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부모 세대의 교육열 덕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이들이 사회적 이슈에 눈을 뜨고 정치판에서 열정을 불태우겠다고 나서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들도 소수계라는 한계로 고민한다. 소위 말하는 ‘주류’에서 배제되거나 인종 차별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들이 정계 진출을 결심하는 것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다. 이런 2세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이 1세 어른들의 지원이다. 선거를 치르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마자들에게 정서적 지원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 사이에는 약간 간극이 있어 보인다.

한인 사회의 일부 ‘어른’들은 2세대의 출마를 ‘사적인 도전’ ‘개인 커리어용’ ‘남의 일’로 치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물론 정치인은 특정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J네트워크

시에스타 논쟁 뜨거운 스페인



안착히
한국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 팀장

“식당들이 새벽 1시까지 영업하는 나라는 합리적이지 않다. 영업시간을 계속 늘리는 일은 미친 것이다.”

최근 스페인을 발각 뒤집어 놓은 올란도 디아즈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의 말이다. 밤 10시에도 저녁 식사가 한창인 생활습관을 고수하는 나라에서 좌파 장관이 의회에서 던진 발언은 도발로 받아들여졌다. 우파 정치인들은 즉각 “디아즈 장관은 우리 모두 일찍 집으로 돌아가 등불 아래서 차를 마시며 공산당 선언을 읽기 바라는 것이다”라고 받아쳤다. 업계도 반발했다. 식당 영업시간을 1시간 줄이자는 제안이 엉뚱하게도 이번 논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스페인인 유럽 국가 중 일과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지는 나라다. 그 이유는 태양이 절정인 오후 2시에서 일을 멈추고 열기가 조금 누그러지는 5시에 재개하는 ‘시에스타(siesta)’ 관습 때문이다. 이 시간, 식당과 상점은 문을 닫고 길거리는 한산해진다. 농경 사회일 때 시에스타는

들이 문을 일찍 닫을 수 없는 조건들이다. 이미 경중 뛰어버린 종업원 인건비, 이들의 늦은 퇴근 및 귀가로 발생하는 심야 교통비, 그리고 야근으로 생기는 각종 육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생각한다면 식당 영업시간을 줄이자는 디아즈 장관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아 보인다.

스페인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시간 일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내세우면서 지난 수년간 스페인만의 특수한 노동 시간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시에스타가 이런 노동시간 축소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인식과 생활습관은 무섭다.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종의 문화가 되어버린 생활 관습을 대상으로 하는 논쟁은 예민한 측면이 있다. 스페인의 생산성 제고와 노동시간 단축 과제가 그들의 전통과 맞서며 어떤 변화를 이루어낼지 흥미롭다.

고단한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낮잠을 자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었다.

2016년 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이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키는 스페인 사람은 약 18%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낮의 브레이크 타임(break time)은 스페인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시에스타 이후 오후 8시까지 이어지는 영업, 이에 따라 늦어지는 저녁 식사, 식사 후 술 한 잔 마시며 즐기는 ‘소브레메사’(sobremesa: 식 후 식탁에 남아 대화를 즐기는 시간)까지, 식당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빈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매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매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21세기엔 사과가 리더의 언어... 쿨한 사과로 전화위복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사과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변명하지 않겠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 같은 진솔한 화법으로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고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유형의 리더십으로 기억된다.

2013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가 웹사이트 장애를 일으켜 혼란과 비난이 빚발쳤을 때다. 오바마는 TV로 중계된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내 책임이다. 문제 개선을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의 재빠른 사과로 정치 쟁점화를 노리던 공화당은 그만 공격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같은 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참사 때도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바로 사과했다. 장관이나 실무자들을 비난하지도,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았다.

굳이 대통령이 나설 일일까 싶은 것까지도 공개 사과의 정공법으로 난관을 돌파하는 모습은 책임 인정에 인색했던 역대 대통령들과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피해 당사자와 직접 소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경영학 서적에 등장할 정도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공습으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의 의료진·환자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 빠른 대처로 분청이 확실한 걸 막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오바마는 직접 의사회 회장에 전화해 "미국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여기자에 말실수 뒤 사과 메시지 넘겨

김호·정재승 교수의 공저 『쿨하게 사과하라』는 흥미로운 케이스를 다뤘다. 발단은 2008년 대선 후보 시절, 오바마가 크라이슬러 자동차 공장 방문을 동행 취재한 여기자에게 "스위티(sweetie)"라고 부르는 실수를 하면서 벌어졌다. 연인이나 친한 친구에게 쓰는 '스위티'는 부적절한 언어 선택이었고, 자칫 성희롱 논란으로 불거질 수도 있는 중대 사건이었다. 오바마는 곧바로 잘못을 깨닫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려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이런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스위티라는 표현을 쓴 것에 사과합니다. 비하하거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실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전화 한번 주세요. 다음에 디트로이트에 올 때 제 홍보팀이 당신에게 보답할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어떤가.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불쾌한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입가에



김영삼 전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대중 전 대통령(가운데)이 각각 책임중 아들이 구속 기소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암기 말,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 특혜 연루 의혹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는 1997년 2월 "아들의 허물은 아버지의 허물"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했고, 얼마 후 현철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은 저서 『김영삼 재평가』에서 "검찰에 진상조사를 주문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자 YS가 불같이 화를 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을 바꾼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별건 수사를 통해 차명 보관 중인 정치자금을 발견했다. 한보 특혜와는 무관했지만 민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YS는 아들의 구속을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중앙포토]

윤 대통령, 이태원·엑스포 사과 변화된 행동 이어지지 않아 실망 "성난 국민 감정 다독여줬어야" 사과 요구 높을 때가 사과의 적기

슬며시 미소가 피어오르지 않을까. '무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인간미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극적 반전을 이끌어내는 데 사과의 힘이 있다.

저자들은 21세기엔 사과가 '리더의 언어'가 됐다고 소개했다. 과거 권력자는 사과하지 않았다. 사과하면 권위와 지도력이 떨어진다고 여겼다. 사과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마지못해 하던 '투저의 언어'였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사과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됐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축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냄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서 갈등과 분청 조정 이 수월해진다. 공감을 이끌어내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정치력야말로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일 것이다. 그러



2013년 오바마 케어 가입 웹사이트의 접속 장애로 혼란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AP=연합뉴스]

니 사과를 하는 게 패자가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사과를 하지 못하는 리더가 21세기엔 패자가 된다.

YS "아들의 허물은 아버지의 허물"

사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선 되지 않는다.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할 '충분조건'이 필요하다. 충분조건이란 ①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②피해를 준 데 대해 책임을 지며 ③변화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사과에 대하여』의 저자 아르라자르는 강조한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암기 말, 차남 김현철씨의 한보 특혜 연루 의혹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그는 1997년 2월 "아들의 허물은 아버지의 허물"이라며 국민 앞에 사과했고, 얼마 후 현철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은 저서 『김영삼 재평가』에서 "검찰에 진상조사를 주문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자 YS가 불같이 화를 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을 바꾼 수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별건 수사를 통해 차명 보관 중인 정치자금을 발견했다. 한보 특혜와는 무관했지만 민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YS는 아들의 구속을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두 아들이 사법처리되는 비운을 겪은 김대중(DJ) 전 대통령도 2002년 기자회견을 열어 "제 자식들 문제로 국민에게 격정을 끼친 데 대해, 죄송하고 슬픈 심정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제 자식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는 데 조금도 이의가 없다"며 고개 숙였다. "친·인척 감시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제도 개혁도 지시했다.

YS·DJ의 경우는 성공한 사과라 할 만하다. 사과의 '표현'뿐 아니라 책임 중 아들을 구속하는 구체적 '행동'이 뒤따르면서 국민이 진정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화된 행동을 통해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한 라자르 교수의 지적대로다. 정치인, 특히 지도자에게 있어 사과는 고도의 정치 행위인 것이다.

"오만과 독선 보인 데 대해 사과해야"

22대 총선(4월 10일) D-6일, 각종 악재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 의힘 곳곳에서 대통령 사과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해진(김해울) 후보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한 것, 당을 분열시킨 것,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대통령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나온 조국혁신당이 기세를 올리면서 수도권 출마 여당 후보들의 위기감이 급상승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의 의료 과업 담화(1일)마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여권 내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민심의 방향과 동떨어졌다"거나 "국민들의 성난 감정을 좀 다독여줘야 한다"는 거친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회 당원직을 이탈해줄길 요청한다"(함운경 마포을 후보)며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한다.

돌아보면, 윤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한 건 아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집중 호우 등 고비마다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대국민 담화를 내

고 "모든 것은 저의 부족 탓"이라고 사과했다. 그런데 왜 국민은 윤 대통령이 사과에 인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윤 대통령으로선 혹평에 서운할 수 있겠으나, 사과의 수용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선 변화된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말뿐인 사과'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태원 참사, 엑스포 실패로 사과하긴 했지만 실세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책임져야 할 관료들을 되레 영전시키는 일이 벌어지니 납득할 수도, 사과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 아닐까.

아리송한 디올백 논란 사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을 선물한 목사가" 자주 오겠다고 해서 그 거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책임을 인정한다는 건지 아닌지 아리송한 화법이다. "일관된 원칙과 잦대는 제 가족, 제 주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던 후보 시절 발언과도 180도 다르다. 설치를 검토하던 제 2부속실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다. 게다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약속도 식언이 돼버리면서 국민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권이 사과에 인색한 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 때문이란 얘기도 나온다. 최순실과의 연관 고리를 쉽게 인정하는 바람에 야당이 공격의 발미를 쥐 결국 탄핵에 이르렀다는 후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비극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멸을 막을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며 시간을 허비한 정치력 부재 탓이 크다. 엇그제 로이터 통신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게 "김 여사가 부정적 논평으로부터 여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뼈아픈 지적이다.

100% 완벽한 정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공(功)과 과(過)가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과의 기술, 즉 정치력에 달렸다. 쇠도 달궈질 때 치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게 타이밍이다. 상대가 들을 자세가 돼 있을 때 진정성 담긴 사과를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사과 요구 높을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막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탐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매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시 설

불법대출·막말·아빠찬스...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총선 후보들의 의원 자격 논란이 접입가경이다.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11억원을 대출받은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불법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1년 사업자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딸이 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품 구매 내역서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사해 보니 구매업체 내역에 이미 수년 전에 폐업한 업체가 포함돼 있었다.

또 일부 업체는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아 유령업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양 후보 딸은 대출 이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

니 사업을 리가 없다. 양 후보가 사업 증빙서류를 위조했을 것 이란 세간의 추정이다

새마을금고, 양문석 딸 대출 전액 회수키로
김준혁, 박정희·김활란 막말 파문 확산 일로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 딸의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 문제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천 취소 요구가 나왔던 양 후보다. 이번엔 불법 대출, 문서 위조 혐의로 처벌될 위기라니 과연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겠는가.

김준혁(수원정) 후보의 막말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과거 유튜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군 위안부와 성관계했다고 말한 게 드러나 못매를 맞던 차에,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 장교에게 학

생들을 성상납했다는 발언까지 터져 이대와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공교롭게 김 후보가 막말한 유튜브 브는 2012년 총선 때 서울 노원갑에 출마했다가 ‘라이스 강간 살해’ 막말로 민주당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김용민씨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김준혁 후보는 결국 발언이 경솔했다고 사과했지만 이게 과연 사과로 끝낼 문제인가.

공영운(화성을) 후보는 아들에 이어 딸의 부동산까지 지도마에 올랐다. 공 후보의 딸 부부는 지난해 10월 11억원의 대출을 받아 성수동 재개발 아파트를 22억원에 매입했다. 공 후보는 “(딸에게) 일부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딸이 아파트를 산 지 두 달 만에 인근 삼표 부지에 60층 복합건물 신축 계획이 발표됐다. 2017년 6월

공 후보가 성수동 땅(나중에 아들 증여)을 샀을 때 너 달 뒤 삼표 성수공장 이전이 발표된 것과 유사하다. ‘아빠 찬스’의 결정판이라는 상대 측의 비판에 공 후보는 “영끌, 갭투자는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대응해 젊은층 사이에 논란을 확대시켰다.

불법 대출, 막말, 아빠 찬스는 민주당이 내세운 공정, 포용, 특권 철폐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는다. 결국 이들을 공천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2012년 김용민씨 한 명의 문제가 막판 판세를 뒤엎는 것을 기억할 민주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재검토하라.

증원 규모 빗장도 푼 정부... 전공의들도 대화 응하길

정부 관계자들이 어제 잇따라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실제 전공의 대표와 물밑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대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전제로 제시하긴 했지만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며 정원 확대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간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라며 강경했던 태도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은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을 치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할 만큼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2일 비상경엄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60여 개 병동 중 10개가량을 폐쇄하고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다른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해 일부 대형 병원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진료 단축에 들어갔다. 전공의 공백을 두 달 가까이 메우며 체력이 한계에 달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환자들 고통은 커져만 간다. 지난 주말 충북에서 3세 여아가 상급병원 9곳에서 응급실 전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숨진 것도 병원의 의료진이 부족

한 탓이었다. 이런 사고가 당장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2일 마감된 인턴 임용 등록에서 대상자 3068명 중 4.3%인 131명만 등록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인턴 없이 한 해를 버려야 한다. 의대생 유급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다음 해 의대에선 5000명이 아닌 8000명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의료체계가 휘청거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호응했다.

이제 공은 전공의들에게 넘어가 있다. 물론 만나서 아무 진전도 없이 이용만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낸 만큼 당장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일단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보인 만큼 모처럼 생긴 대화 기회를 건어차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의료 혼란이 전공의 사직에서 시작된 만큼 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주체도 전공의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대화를 시작해 서로 의중을 전달하고, 한편으론 내부 의견을 모아 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이 전공의들의 대응적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달콤한 말들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포퓰리즘 청정국이 아님을 보여준다. 온통 세금 깎아 주고 현금 쥐여 주겠다는 말뿐이다. 포퓰리즘 공약 대부분은 선거가 끝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겠지만, 앞으로 국가 정책을 오랫동안 비틀 것도 있다.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지원금 공약과 ‘세세(謝謝, 고맙다)’ 발언도 그중 하나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자고 했다. 달콤한 말이다. 정부·여당의 반대로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공돈을 주겠다는 야당 대표의 공약은 불황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기대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거부하는 집권 세력은 민생에 무심한 것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어떤 나라든 처음부터 포퓰리즘 천국은 아니었다. 민생 지원이란 명목의 현금 살포에 맞들이고 중독되면서 망가져 갔다. 이 대표 말대로라면 돈(지역화폐)을 나눠주고 들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는 현 정권을 향해 “무식한 양반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 많은 선진국은 비보라서 그렇게 하지 않나.

전 국민 현금 지급은 전통 경제학에서 비판하는 정책 중 하나다. 우선 효과가 크지 않다. 우리도 실험 전례가 있다. 코로나19 때 전 국민에게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줬다. 자영업 경기가 반짝 좋아지긴 했지만, 약발은 오래 가지 않았다. 매출 증대 효과가 투입 예산의 26.2~36.1%에 그쳤다는 분석(한국개발연구원)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들어오자 원래 지출하려던 돈을 쓰지 않고 아까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를 자극한다. 이 대표가 흔들어대는 대파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대표가 13조원으로 추산한 재원은 또 어떤가.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이니 빚을 더 낼 수밖에 없다. 다 국민 부담이다. 그가 이것만 주겠다고 한 게 아니다. 출생 기본소득(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고, 신혼부부에게 1억원 기본대출을 해준다고 했다. 국립대 전

액 무상교육도 있다. 돈을 가져 준다는 제안은 솔깃하다. 그러나 공짜 점심이 없듯이 포퓰리즘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물가가 뛰고 재정이 무너진다.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만 사례가 여럿이다.

이 대표는 ‘세세’ 발언에서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세세’, 대만에도 ‘세세’ 이라면 되지”라고 했다. 또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뭘 상관 있나”는 말도 했다. 물론 국가 간 선린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세세’만으로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대만이 중국과의 대립으로 위기에 빠지면 한반도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과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현실성 낮은 전 국민 지원금 공약 ‘세세’ 만으로는 안보·경제 못 풀어
총선 후 무책임한 정치 난무 걱정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대중 무역수지가 나빠진 것을 중국의 한국산 불매 탓으로만 보는 건 오진이다. 2차전자·석유화학·철강 등에서 양국 경합이 치열해진 게 큰 이유다.

중국을 그저 고마워한 이의 대명사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일 거다. 그는 2017년 중국 방문 때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하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방중 기간 열 끼 식사 중 여덟 끼나 ‘혼밥’을 하면서도 불평 한번 안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우리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한한령’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도 않았다. 이런데도 ‘세세’가 만능키라는 말인가.

많은 이가 총선 후를 염려한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무책임한 정치가 난무할까 걱정한다. 이 대표에게 공천장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총직향 호위무사들은 이재명의 정치 구현에 앞장설 것이다. 정권은 국회가 견제한다.

그러나 야당엔 그런 견제가 없다. 한국 정치의 아킬레스건이다.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중앙일보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Asahi Shimbun, 日本経済新聞)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또 그래?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

지치고 힘든 위장을 위하여
위에 좋은 성분만 가득 담았습니다!

청정지역 오키나와 미야코 섬에 있는 우메켄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제도아리(자색강황)는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었으며 위장 건강에 탁월한 발효 양배추, 여주, 생강 및 5가지 약초가 함유되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도아리로 당신의 위장이 튼튼해지면 당신의 하루도 튼튼해집니다!*

- 제도아리 (자색강황)
- 발효 양배추
- 여주
- 생강
- 5가지 위장에 특화된 약초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정)

위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오키나와 제도아리로 위장은 건강하리!*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배앓이와 위장 경련이 심한 분
- 위장장애로 트림, 구취가 심한 분
- 습관적 구토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 쉽게 식중독에 잘 걸리는 분
- 소화 불량과 위통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고 시원하게~ 우메켄 소화효소!

5대 소화효소 함유

- 지방 분해 리파아제
- 단백질 분해 프로테아제
- 섬유소 분해 셀룰라아제
- 탄수화물 분해 아밀라아제
- 유제품 분해 락타아제



쉽게 체하고 속이 늘 더부룩하며 위산과다, 식후 무기력증이 심한 것은 몸속에 부족한 소화효소!

위, 소화를 위한 효소 총집합
우메켄 소화효소(과립)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PR. 4TH - APR. 11TH, 2024

Ayam Took[®]
런천미트
LUNCHEON MEAT

3 for \$6.99



12 OZ/EA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pril 4,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60세 이후 집 사면 득일까 실일까

1946년~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는 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판매자의 43%가 베이비부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 매매로 중위수익(median profit) 66만 달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택을 판매한 베이비부머는 임대료를 하지 않는 한 다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주택을 사는 것이 득일까, 실일까. 60세 이후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장단점 및 고려사항을 알아봤다.

▶장단점
주택 소유 시 가장 좋은 점은 세금 감면 혜택이다. 주택 구입 시 부부합산의 경우 모기지 이자 75만 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독신은 해당 금액의 절반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매년 주 및 로컬 재산세를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렌트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그러나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먼트 외에 수만달러의 클로징 비용 등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점일 수 있다. 만약 대출 상환을 마친 기존 주택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싱글인 경우 소득의 25만 달러, 부부합산인 경우 50만 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소득세 납부 수준에 따라 주택 판매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액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 세금도 발생할 수 있다. 모기지 상환금 외에도 주택 유지비 역시 만만치 않다. 주택 유지비는 집



60세 이후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유지비가 적게 들고 관리가 쉬운 작은 규모의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unsplash.com 캡처)

단기거주 시 감세, 판매수익 거의 없어 관리, 거동 편한 작은 규모 집 고려할 만

값의 연간 1~4%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 역시 적잖은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 구입 후 당장은 집을 관리하는데 체력적으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에 부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모기지 대출
주택용자를 해야 할 경우 은퇴 시니어들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걱정할 수 있다. 시니어 부동산전문 인스티튜트(Seniors Real Estate Institute) 니키 버클로 대표는 “시니어라고 대출이 청년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모기지 대출은 연령과 상관없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안정적 소득 등 현재 재정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직장이 있는 도시 거주 65세 시니어인지, 은퇴했거나 고

정 소득이 있는 75세인지, 50% 다운페이먼트가 가능하고 은행 예금으로 200만 달러를 보유한 85세 시니어인지 등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그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금 vs 대출
주택을 100% 현금으로 총당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시니어 바이어는 현금 구입을 선호한다고 한다. 버클로 대표는 “시니어들은 빚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특히 모기지 상환금이 남은 집을 사망 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인으로서 불리길 원하지 않는 베이비부머는 주택 용자에 대해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버클로 대표의 설명. 따라서 주택을 현금 매입할 것

인지 혹은 용자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매월 모기지 대출금 상환 여부에 달려 있다. 또 현금 매입을 고려 중이라면 보유중인 현금의 상당액을 주택에 투자해도 이후 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거주 기간
60세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재정적, 정신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입 전 재정적 문제 외에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를 살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 구입한 집에서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향후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면 주택 구입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거주 기간이 줄어들수록 주택 소유로 인한 혜택도 줄어든다. 특히 구입 후 5년 미만 거주 시 세금 감면이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수익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주권 객원기자
▶4면 '노후 주택'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혼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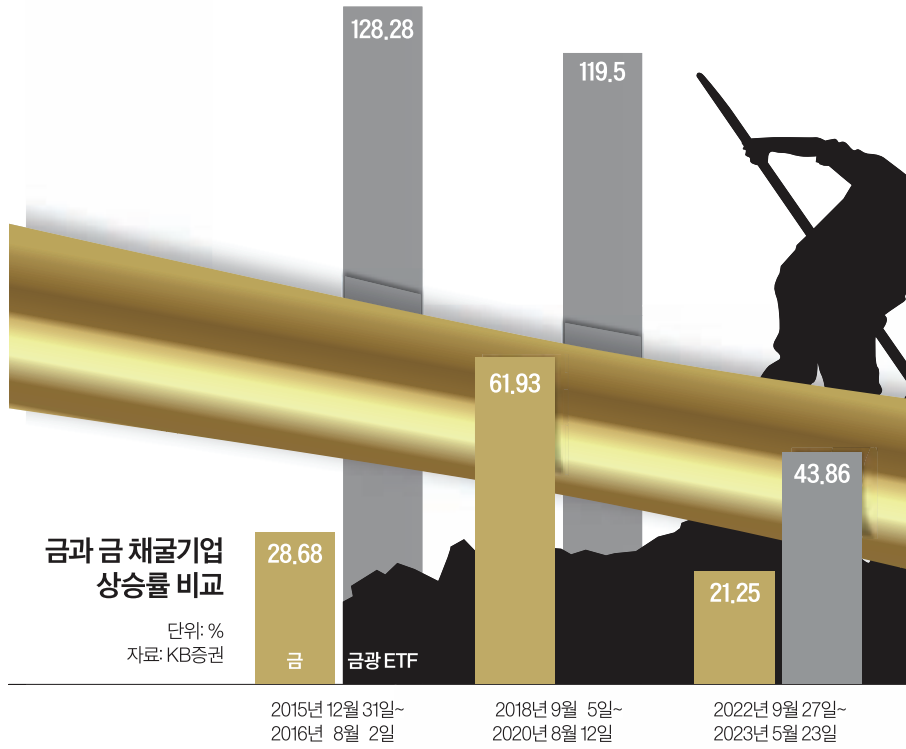
야곱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최근 돌반지 한 돈(3.75g)의 소비자 가격이 43만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1일 뉴욕상품 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트로이온스(31.1g)당 2184.7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국제 금값이 가파르게 오른 결과다. 장중에는 온스 당 2225.3달러까지 치솟았다. 최근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이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목표 금값(온스당 2150달러)을 이미 뛰어넘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미 금 투자의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법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금값이 상승하면 항상 뒤따라 오르는 금 채굴기업 등 다양한 투자법이 있기 때문이다. 머니랩에서 금값 전망 및 채굴기업 투자법 등을 담아봤다.



금값은 통상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와 반대로 움직인다. 금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 자산이라 금리가 높을 때는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서다. 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며 금값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까지 시장에서 활발하지 않던 매크로 펀드(환율과 금리 등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투자하는 펀드)가 새로운 금 매수 세력으로 등장했다”며 “중동 긴장 고조와 글로벌 해운 중단, 부진한 중국 경제 문제, 연말 미국 대통령선거 등의 이유로 안전자산인 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값이 추가로 더 오를 거라 예측하는 쪽은 최근 금값이 뚜렷한 투자 수요 없이 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값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발 수이다.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하면 이 돈으로 ETF 운용사들이 금을 사들이곤 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금 ETF에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갔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글로벌 금 ETF가 보유한 금 보유량은 2020년 10월 말 3915(톤)에서 올해 2월 말 3126(톤)으로 20% 줄었다. 올해 2월에만 금 ETF에서 57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대체 투자자산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ETF의 반자리를 채운 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와 금 소매 수요다. 최근에는 중국 민간 부문에서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금 수요를 알 수 있는 스위스의 중국 금 수출은 지난 1월 77.8t으로 지난해 말보다 2배 늘었다.

KB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금값 전망에 대해

“실질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데다 그동안 금 ETF에서 자금이 빠지는 와중에도 금 가격이 꺾였었기 때문에 ETF에 자금이 유입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올해 안에 금값이 온스당 2400~25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값 상승기 때 주목해야 할 투자 대상은 금 채굴기업이다. 금 채굴기업은 금값 상승 때는 이익이 늘어나 주가가 오르는데, 금보다 가격 변동성이 더 크다. KB증권에 따르면 금값 상승기 때 금광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은 금 가격 상승률의 2~3배를 기록했다.

예컨대 2018년 9월 5일~2020년 8월 12일 사이 금 가격은 온스당 1626.7달러에서 1972.4달러로 21.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금광기업에 투자하는 반 애크 골드 마이너 ETF(GDX)의 상승률은 무려 119.5%였다. 실제 금 채굴기업들의 주가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GDX의 상승률은 12.44%로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6.36%)의 2배 수준이다.

상승률이 아닌 금 채굴기업 주가 자체는 아직 지난해 말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캐나다 스프로트자산운용의 존 헤서웨이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역대 Fed의 금리 인하 뒤에는 금광 주식이 크게 상승하곤 했다”고 분석했다.

금광 기업이 여전히 싸게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 채굴 기업들이 금을 캐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총유지비용(All-in sustaining costs·AISC)’으로 표시된다. 금광 개발부터 채굴, 운송 등 생산과 관련한 비용뿐 아니라 폐광

캐면 켈수록 ... 금보다 더 금값 '2배 주식' 비밀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돈이 되는 '머니랩'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비용 등을 망라한다. 기업은 통상 평균 금 판매가격에서 AISC를 뺀 만큼을 이익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인건비가 급증한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AISC가 급등했다. 글로벌 1위 채굴기업인 뉴몬트의 경우 AISC가 2019년 온스당 966달러에서 지난해 온스당 1444달러로 49% 뛰었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국제 유가 등이 안정될 경우 금광 기업 투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글로벌 2위 금 채굴기업인 배릭골드의 그레이엄 셔틀워스 부회장은 지난달 14일 실적 발표에서 “에너지는 직접적인 비용의 20%지만,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에너지 가격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5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에너지 가격만 잡히면 비용 상승 폭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금값은 뛰고 금 채굴기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으니 월가의 콘센도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탠리 드러켄펠러는 지난해 4분기 배릭골드 주식 176만 주(3180만 달러, 지난해 말 증가 기준)와 뉴몬트 주식 47만4000주(1962만 달러)를 사들였다.

김현빈 NH-Amundi 자산운용 ETF본부장은 “고정비용 요인이 높은 채굴기업 주가는 금 가격 이르면 현물(금)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 채굴기업에 투자하는 법은 개별 기업에 투

자하거나 ETF 등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건 쉽지 않다. 각 채굴기업이 보유한 금광의 품질, 금광의 위치, 금 채굴 비용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서다.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나 펀드 등으로 투자하는 게 좀 더 쉽다. 대표적인 금 채굴 ETF는 GDX가 있다. GDX는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주요 금 채굴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금 채굴 관련 매출이 50% 이상인 시가총액 7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금 채굴기업 51개로 구성돼 있다. 뉴몬트(12.23%), 배릭골드(8.74%), 애그니코이글마인즈(8.41%) 등의 순이다. 연금계좌 등으로 투자하려면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NH-Amundi 자산운용은 ‘HANARO글로벌금채굴기업 ETF’를 올해 1월 상장했다. GDX와 구성 종목 등은 같고 총보수는 0.45% 수준이다.

다만 금 채굴기업 ETF는 장기 투자할 땐 불리할 수 있다. 금 채굴기업의 경우 금값 하락 시 주가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GDX ETF가 출시된 2006년 5월부터 이달 22일까지 누적수익률(배당금 포함)은 -10.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금 현물 ETF(GLD)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206.7%로 차이가 크다.

KB증권 오재영 연구원은 “금 채굴 기업 투자는 금 가격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단기적인 투자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라면 금ETF 등 진짜 금에 투자하는 게 훨씬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 개런티 이자
/ 단기 (3년, 5년, 7년)
/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5.30%	5.30%
	\$115,597	\$129,461	\$143,548
\$300,000	4.95%	5.30%	5.30%
	\$346,791	\$388,385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기업 밸류업 발표 이후 주총 달라졌나

버핏의 오마하 주총처럼 우리 주총도 주주 축제가 돼야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정기 주총회는 매년 5월 초 네브래스카주의 소도시 오마하에서 열린다. 올해는 5월 4일인데 주총 전날은 주주들을 위한 쇼핑 데이, 주총 당일 저녁엔 피크닉이, 주총 다음날은 마라톤(혹은 조깅 내지 걷기) 대회가 이어진다. 쇼 핑 데이엔 카테일을 즐기며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자회사 제품을 주주 할인가로 살 수 있다. 주총 행사는 이렇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축제처럼 열린다. '자본주의의 우드스톡'이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지난해 5월 6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회(큰 사진). 작은 사진은 지난해 주총장 주변 풍경. 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주요 제품으로 소름을 꾸었다.

[AP.로이터=연합뉴스]

자본주의의 우드스톡 오마하 주총

가장 주목받는 행사는 역시 주총 당일 버핏 등 최고경영진과의 Q&A다. 주주뿐만 아니라 언론도 버핏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인다. 지난해엔 6년째 참석한다는 13세 소녀 테프니의 노숙한(?) 질문이 화제였다. "미국 국가부채가 31조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달한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이션과 싸운다고 하면서도 몇조 달러를 찍어낸다. (약달러를 예상하고) 중국·사우디아라비아·브라질 등은 달러에서 손을 뗀다. 미래에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을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저 소녀를 연단에 모셔 답변을 들어야겠는데요"라고 농담한 버핏은 곧 진지해졌다. "다른 어떤 통화도 달러 같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없다. 국제무역에서 달러 이외 통화의 결제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달러를 대체하는 수준은 아니다."

몰아치기 주총, 소액주주 참석 어려워

주주와 경영진과의 격의 없는 소통, 쇼핑에 체육행사까지 어우러진 잔치 같은 주총, 한국 투자자들은 오마하에서 열리는 주총이 부럽다. "우리 기업들도 버크셔 해서웨이와 같은 주총 문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주들이 대표이사에게 당당히 질문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리를 통해 대표이사가 갖는 경영철학과 관점, 사업의 방향성, 주주를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박영옥·김규식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한국의 주총은 어떨까. 매년 3월 말에 주총이 열리는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난달 28일은 '슈퍼 주총 데이'였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3분의 1인 700여 곳이 이날 주총을 했

다. 과거에는 소액주주 의결권을 대리하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기 위해 같은 날 '몰아치기 주총'을 했다지만 요즘엔 주총에서 시민단체를 별로 볼 수 없는데도 기업은 같은 날 주총을 여전히 선호한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신인 대표이사도 불참한 카카오 주총

지난달 28일은 목요일, 평일이다. '28일 오전 9시 제주'에서 열린 주총엔 주주들이 얼마나 참석했을까. 그냥 기업도 아니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많은 185만 명의 주주가 있는 '국민주' 카카오 얘기다. 카카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2014년 합병한 뒤 분사 소재지인 제주에서 매년 주총을 열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일반 주주'는 회사 직원과 노조원을 제외하면 10명이 채 안 됐다. 주총에서 새로 선임된 정신아 대표이사도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1년 17만 원대였던 주가가 요즘 5만 원대로 3분의 1토막이 났기에 참석한 주주들이 주가 질문을 던졌지만 이날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홍은택 대표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전자투표 등으로 안건 의결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주총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총 온라인 중계는 하지 않았다.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20개사는 주총을 온라인으로 내보냈다.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은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주요 임원이 총



출동해 주주와의 대화에 나섰다. 주총이 단순히 의결 절차를 넘어서 경영진과 소통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올해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환원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셌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은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주총 무명을 얻어보니 요구를 관철한 행동주의 펀드는 많지 않았다.

행동주의 펀드, 삼성물산·KT&G에 제

삼성물산을 상대로 회사의 현금창출 능력을 웃도는 수준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를 요구했던 시티오브브러던 등 5개 행동주의 펀드는 늑대처럼 떼 지어 공격하는 '울프 팩(wolf pack)' 전략을 썼지만 주총에서 패했다. 행동주의 펀드가 IBK기업은행과 함께 방경만 KT&G 사장 선임에 반대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자신들이 미는 사외이사 한 명을 확보했을 뿐이다. JB금융지주와 태광산업에도 행동주의 펀드가 지지하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 입성했다.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한 건 국내 금융지주에서 JB금융지주가 처음이다. 태광산업도 2007년 장하성 펀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 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했다. 주총 전에 기업 스스로 경영진 등 이사 보수의 총액 한도를 줄인 기업도 있었다(삼성전자·SK·LG 등). 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이사 해임(45.5%)이나 감사·감사위원 선임(31.6%) 등의 주주 제안 가결률은 꽤 높았다. 주주 제안 전 단계인 공개 주주서한 발송도 2020년 4개사에서 2022년 13개사(28건)로 늘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한 기업이 1년간 9건의 공개서한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행동주의 펀드가 그 래도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빛과 그림자

행동주의 펀드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인색했던 한국 기업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오히려 지배주주의 이익만 챙기는 기업의 체질 변화를 이끈 점이 공(功)이라면,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주주 환원을 요구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떡튀' 한다는 점은 과(過)라고 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날린 이는 미국 저널리스트인 라나 포루하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존재감이 약해진 애플을 보면 그의 지적을 내놓고 반박하기 힘들다. 포루하는 "가장 선망받는 기업인 애플이 전통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라 '금융 공학'을 통한 돈벌이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은 기업 경영진과 대주주의 배만 불리고, 기업 자체의 중장기적 혁신 역량과 일자리 창출 능력,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애플을 그 길로 이끈 건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같은 월가 세력이라고 주

장한다. 포루하는 "단기적 성과를 내라는 압박이 가중되다 보면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 활동의 동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날의 기업공개(IPO)는 신생 기업이 훌쩍 커 나갈 새로운 기회의 장이 아니라 성장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금융과 실물경제, 즉 거저먹는 자(taker)와 만드는 자(maker) 사이의 힘의 차이를 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나 포루하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

증권가에선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극대화를 통한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기여에도 동참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며 "미국도 1980년부터 퇴직연금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투자 지형이 개인에서 기관투자자로 바뀌었고, 기업 이사회 내 독립 이사진의 비중이 1985년 30%에서 1990년 60%로 급증하며 주주 환원이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서 주주권 과잉 걱정은 우스워"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기고에서 "과도한 단기주의 등 주주권 과잉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대로 된 주주 자본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 증시에서 주주권 과잉을 미리부터 걱정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권이 잘 행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소액주주의 합리적인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자. 전자주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자. 과도한 상속세도 문제지만 우선 상속세를 지금처럼 시가가 아니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자. 상속을 앞둔 지배주주가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이 사라진다. (박영옥·김규식)

올해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스톡옵션 지급 사업의 대상인 중소기업 12개사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상생마켓을 열고,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공연도 했다. 모쪼록 주총이 좀 더 즐겁고 유익한 주주들의 잔치가 됐으면 한다.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까지는 아니더라도.

서경호 논설위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p>스프링 필드 타운홈</p> <p>\$670,000</p> <p>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p>	<p>페어팩스 싱글홈</p> <p>\$785,000</p> <p>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p>	<p>페어팩스 타운홈</p> <p>\$800,000</p> <p>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p>	<p>리스버그 싱글홈</p> <p>COMING SOON</p> <p>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p>	<p>페어팩스 타운홈</p> <p>COMING SOON</p> <p>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p>
--	--	---	--	--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배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이곳에서

2023 **A** Return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삽... 333만㎡에 1만7000가구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가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첫 삽'을 댔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이하 계양테크노밸리)가 지난달 29일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계양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토지 보상 지연 등 문제로 사업 일정이 밀렸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2025~2026년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2026~2027년 정도로 전망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첫 주자인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4곳(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신도시도 연내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계양지구는 굴현동·동양동·박촌동 일대 333만㎡(101만 평)에 조성되며 공공주택 90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이번에 착공하는 물량은 계양지구 28개 주택 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받은 A2와 A3블록 총 1285가구 규모다.

A2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 A3블록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행복주택) 538가구가 건설된다. 이 물량이 2026년 12월 입주할 예정이다. 본청약은 오는 9월 진행한다. A2블록 공공분양주택은 전용면적 59㎡·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면적: 333만㎡
주택: 1.7만호
입주: 2026년

신도시(가구)	진행 상황
인천 계양(1.7만)	주택착공(2024년 상반기)
고양 창릉(3.6만)	주택착공(2024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6.6만)	
하남 교산(3.3만)	주택착공(2025년 1월 → 2024년 하반기)
부천 대장(1.9만)	
광명 시흥(7.0만)	지구계획 승인(2024년 하반기)
의왕·군포·안산(4.1만)	지구계획 신청(2024년 상반기)
화성 진안(2.9만)	지구계획 신청(2024년 하반기)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건설 이르면 2026년 12월부터 입주 계획 서울 접근성 좋아 실수요자 관심 LH주택 감리 등 업무, 조달청 이관

74㎡·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하고,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55㎡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계양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해 실수요자 관심이 많다.

국토부는 신도시 입주 초기 입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초·중고교, 광역 교통망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00가구, 남양주 왕숙(약 4000가구), 하남 교산(약 1100가구), 부천 대장(약 2500가구)지구에서도 첫 주택 착공을 할 계획이다. 약 1만 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주택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 반 토막 난 상황"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을 서둘러 시장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구의 본청약은 내년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다음 달부터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하나로, 'LH 전관' 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다음 달 1일부터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 입찰 때도 LH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LH 3급, 조달청 5급 퇴직자가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자로 배치됐을 때도 감점을 준다.

또 철근 누락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6개월 내 기동 등 주요 구조부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는 아예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런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마야 도시 문명의 고전, 팔렝케

마야는 17세기까지 메소 아메리카 지역에 산재했던 수백 개 도시 국가를 통칭한다. 3800여 년의 긴 역사 중 서기 250년부터 950년까지를 마야 문명의 황금기라 꼽는다. 팔렝케는 그 대표적인 유적이다. 도시 왕국 팔렝케는 368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한 후, 9세기 들어 급격히 쇠퇴해 밀립 속에 파묻혔다. 18세기 스페인 침략자들이 재발견한 후, 지금까지 발굴한 유적은 신전을 비롯해 수백 점이지만, 이는 전체 추정 유적의 10%에 불과하다.



도시의 왕궁 등 귀족 영역과 공공시설 같은 일반 시민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두 영역은 작은 강줄기로 구획되는데, 중심 부분에 지하인공 배수로를 만들어 중앙광장을 조성했다. 마야의 도시 국가들은 신정일치 체제로 대부분 평지에 들어섰다. 여러 단의 계단식 석축을 쌓아 인공산을 만들고, 그 정상에 신전 등을 건설했다. 팔렝케 역시 피라미드형 기단 위에 궁전과 신전을 세웠는데 석축이 높지 않아 상부 건물과의 적절한 비례가 아름답다.

팔렝케 궁전은 4개의 중정을 중심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통치공간은 물론이고 오락시설, 제의시설 등 여러 공간이 지붕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다. 궁전 중앙부에는 '전망탑'이라는 4층 누각까지 솟아있다. 모두 석조이며 표면을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상형문자 등을 조각해 장식했다. 상수도를 공급해 사우나 욕장도 이용했고 지하터널을 축조해 비밀 통로로 사용했다. '비문 있는 신전'은 왕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파칼대왕(615~683)의 무덤으로 판명되었다.

공작의 신전, 십자가 신전, 자칼의 신전 등 명칭이 붙은 다른 신전도 역대 왕들의 무덤 겸 신전으로 여겨진다. 후기 마야의 유적은 석축부가 지나치게 거대해져 피라미드만 강조되고, 인신공양 등 폭력적 내용의 장식으로 가득해진다. 반면 1200년 전의 팔렝케는 사실주의적 장식과 고전주의적 조화로 충만해 인간적 도시와 건축의 냄새가 물씬하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 1면 '노후 주택'에서 이어집니다

또 여러 차례 이사하게 된다면 주택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은퇴 후 한국이나 해외에서 장기 체류로 막상 구입한 주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다면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이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

▶ 어떤 집 사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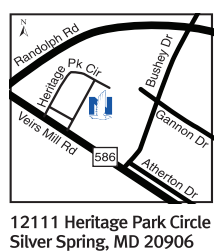
60세 초반에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대부분 적어도 그 집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할 계획을 갖는다. 이때 집주인의 건강은 10년 후와 20년 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2층 집이나 넓은 뒷마당, 넓은 주방 등은 지금 당장은 예전처럼 큰 불편함 없이 영위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우징 컨설턴트들은 "시니어들에게 주택 구입 시 가능한 작은 규모의 집을 사라고 권한다"고 조언했다.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VA, MD, DC, NC, TX, PA, SC, FL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 VA MC-782; TX 2501870; PA 106823; FL MLD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 Tel: 703-231-5572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410,000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 + 화3, 차고 2

\$8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
1,360sqft, 1985년

\$500,000

약척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모기지 보험 (PMI) 없애기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재용자 수효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동안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한 많은 이들이 주택구입후에 어느정도 집값 상승이 이뤄지고 나면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덕분에 재용자를 통해서 더 낮은 이자율로의 전환할 뿐만 아니라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늘어난 해당주택의 에퀴티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처음 주택구입시 얻은 용자에서 발생해왔던 모기지 보험을 없앴으로 한층 더 페이먼트를 낮추는 효과를 얻었는데 더 이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 덕분에 최소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모기지 보험이라도 없앨 수 있다면 지금의 불안정한 경제지표속에서 가계재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20% 미만의 다운페이

먼트를 하게 될때 발생하는 모기지 보험은 용자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기간이나 납부방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FHA 정부용자가 아닌 일반 Conventional Mortgage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또는 일정조건에 충족되면 모기지 보험은 없앨 수 있다. 모기지 보험 (PMI)이란 통상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대출은행 입장에서 100을 기준으로 주택담보가치로 판단할 때 80까지는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20을 불안전 자산으로 판단하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80까지는 대출을 해주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는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때 바로 이 불안정한 자산에 대한 부분을 담보하고 보장해줄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모기지 보험 (PMI)이다.

이러한 모기지 보험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걸까? 모기지 보험을 없애는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방법은 크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방식이다. 통상 주택용자를 시작한 시점에서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줄어어나가는 시간과 비례해서 주택구입기준 가격을 100으로 볼때 78에 도달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모기지 보험은 없어지게 설계되어있다. 두 번째로는 주택구입시 구입가격기준으로 80에 도달할시에 대출은행에 직접 모기지 보험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예를들어 주택구입시에 가격이 50만불이었다면 50만불의 80%인 40만불에 모기지 잔액이 도달하는 순간 해당 모기지 은행에 연락해서 주택구입 시기 기준으로 80에 도달했으므로 모기지 보험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 세번째 방법은 현재 상승한 부동산 가격기준으로 늘어난 에퀴티를 활용해서 모기지 보험을 없애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주택구입시기에 가격은 50만불이었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현재 시장가격이 60만으로 상승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에퀴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즉 지금 시장 가격인 60만을 기준으로 80%인 48만불 미만으로 모기지 남았다면 해당 모기지 은행에 모기지 보험을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주택의 현재 시장가격에 대한 판단을 해당 모기지 은행에서 고용하는 주택감정사를 통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감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기대만큼 감정가격이 후하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 인지하고 진행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여전히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비용들이 늘어만 가는 자금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납부하고 있는 모기지보험을 없애고 또 그로인해 주택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많은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 703-868-7147

주택의 공정 주거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권리, 즉 공정 주거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소유자, 즉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공정 주거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공정 주거법(Fair Housing Act)이 생긴 유래를 살펴보자. 1910년대 미국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북부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용자 등에서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런 현상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결국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 근교의 주택가로 흑인들이 꾸준히 이사하여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됐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거의 권리를 주기 위하여 제정된 'Fair Housing Act of 1968'에 따른 주택의 매매와 임대의 조건을 보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장애, 미성년 자녀의 유무, 가족의 구성상황 등을 근거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누구에게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동등한 권리를 줘야 하므로 주택 거래 협상이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 시에 서비스나 시설 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되고 마켓에 나와 있는 주택을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거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

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다. 특정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가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택의 감정이나 용자 시 은행의 이자나 수수료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평한 주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감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종,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장애에 근거한 선호도나 제한을 표현한 광고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단일 세대나 소유자가 사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특히 1991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과 복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모든 주거영역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따로 있어야 하고, 접근 가능한 등스위치, 전기 콘센트, 온도계,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애완견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도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미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에도 자기가 사는 유닛 가까운 곳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미셸 원 BEE부동산 부사장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구조

상업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리스 형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즈니스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리스(임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써 각 입장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많다. 계약서상에서의 조건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로 계약한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의 상업 부동산 리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장기 임대 계약에서는 먼저 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장기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그 뒤에 옵션이라는 가계약 기간이 포함된다. 옵션은 계약 기간에 더해 테넌트가 희망할 경우 미리 설정된 리스 금액과 기간으로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후 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80일 전에는 미리 재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도를 전하고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다.

둘째, 설정된 임대료에 더해 매년 조정 가능한 증가율이 포함된다. 이 증가율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시장 트렌드를 적용해서 계약 기간 매년 몇 퍼센트가 오른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서술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건물은 매입할 때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조항들이 향후 시장 방향성과 비교해 투자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셋째, 리스 계약의 형태는 양측이 부담하

는 조건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용도 구분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 리테일상가의 경우, 넷리스(Net Lease)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트리플 넷(TNN)리스는 테넌트가 임대료 외에도 부동산 세금, 보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이다. 이는 랜드로드에 안정적인 수입과 편의를 제공하고, 테넌트에게는 부가적인 비용을 포함한 투명한 지출 구조를 제공한다. 웨어하우스의 경우는 그로스(Modified Gross) 형태가 많고 이는 전기세 등 공공금들과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추가로 오피스건물의 경우 그로스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대형건물에 부분 입점하는 경우 풀 서비스(Full Service)의 형태로 임대료에 모든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유형에 따라 실제로 상업 건물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 대비 순수익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넷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중요 요소에 대한 이해 또한 전략적으로 대비하기에 필수적인 점이다. 예를 들어, 대형 쇼핑센터에 테넌트들이나 랜드로드가 부분 입점을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가령 재임대·전대조항(Relocation Clause)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해 테넌트가 입점하고 있는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한다.

제이콥 라-드림 부동산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주택 리스형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Bowie</p> <p>싱글홈, 방4, 화4</p>	<p>COMING SOON</p> <p>Columbia</p> <p>싱글홈</p>	<p>COMING SOON</p> <p>Millersville</p> <p>\$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5</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689,000 싱글홈, 랜처 스타일, 내부수리 좋은 학교, 0.75 에이커</p>
<p>UNDER CONTRACT</p> <p>Cockeysville</p> <p>\$1,325,000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p>	<p>UNDER CONTRACT</p> <p>Columbia</p> <p>싱글홈, 방4, 화4, 차고</p>	<p>UNDER CONTRACT</p> <p>Millersville</p> <p>싱글홈, 방4, 화4, 차고</p>	<p>UNDER CONTRACT</p> <p>Rockville</p> <p>싱글홈, 방4, 화2</p>	<p>COMING SOON</p> <p>Cooksville</p> <p>싱글홈</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Elkridge</p> <p>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p>	<p>Hanover</p> <p>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p>	<p>Germantown</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Glen Burnie</p> <p>월 \$1,750 타운홈 방2, 화1</p>	<p>COMING SOON</p> <p>Hanover</p> <p>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Odenton</p> <p>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베이비몬스터 “블랙핑크 동생그룹 불리다니 영광이죠”

“장난기 가득한 ‘베이비(아기)’와 카리스마 있는 ‘몬스터(괴물)’. 두 가지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팀입니다.”

1일 공식 데뷔한 7인조 걸그룹 베이비몬스터는 스스로 이같이 소개했다. 이들은 투애니원·블랙핑크 등을 배출한 YG엔터테인먼트에서 7년 만에 내놓은 신인 걸그룹이다.

YG는 지난해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자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비몬스터 멤버 최종 7인을 선발했다. 이후 한국인 멤버 아현(17)이 건강상의 이유로 빠지면서 ‘프리 데뷔’(공식 데뷔 이전) 기간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디지털 싱글 ‘배터 업’(BATTER UP)으로 6인조로 활동을 시작했고, 1일 미니앨범 ‘베이비몬스터’를 발매하며, 아현이 복귀한 7인조 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첫 미니앨범을 발매한 이날 오전 서

울 마포구 YG 사옥에서 베이비몬스터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4세대 걸그룹 중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들이 처음이다. 다소 긴장한 표정의 일곱 멤버들은 “블랙핑크 동생 그룹이라는 수식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며 “베이비몬스터는 ‘YG DNA’가 가득한 그룹”이라고 입을 모았다.

멤버 로라(16)는 “블랙핑크 멤버들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멘토로 오거나 연습생 평가 때 종종 참관했다. ‘관객을 생각하는 에티튜드(태도)가 있어야 한다’ 등 코멘트를 해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블랙핑크 제니와 외모가 닮아 ‘리틀 제니’라 불리는 아현은 “제니 선배님은 제 롤모델이다. 선배님처럼 저만의 색깔을

갖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했다.

선배 그룹과의 차별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게 저희의 강점”이라면서 “틴스러운(10대의) 매력을 자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2002년생 루



카를 제외하고 모두 2005~2009년생이다. 또 한국인 3명(라미·로라·아현)과 함께 일본(루카·아사), 태국(치키타·파리타) 출신 멤버들이 모인 다국적 그룹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일본·태국 등 아시아 5개국 팬미팅 투어에 이어 8월엔 일본 최대 음악 축제 ‘서머소니 페스티벌’ 무대가 예정돼 있다.

이번 앨범 타이틀 곡 ‘쉬시’(SHEESH)는 YG 특유의 색깔이 녹아든 힙합 기반 댄스곡이다. 수록곡 ‘라이크 댓’(LIKE THAT)은 팝스타 찰리 푸스가 작사·작곡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베이비몬스터는 YG 걸그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김작가 대

중음악 평론가는 “지난해 말 블랙핑크 멤버 개인 계약에 실패한 YG로서는 ‘베이비몬스터’가 어느 정도 정착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뉴진스·아이브·르세라핌·에스파 등 쟁쟁한 4세대 걸그룹이 포진해 있는 아이돌 시장에서 주목받기 위해선 결국 차별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 평론가는 “요즘 걸그룹은 노래의 힘이 중요하다. 베이비몬스터의 곡에선 YG의 색이 묻어날 뿐, 차별점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걸그룹 레드오션 시장에서 베이비몬스터의 경쟁 상대는 또래 그룹 뿐 아니라 선배인 블랙핑크도 될 수 있다. 건재한 블랙핑크와 색깔이 겹치는데 어떤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류현진(원손) 1987년생	문동주(오른손) 2003년생	펠릭스 페냐(오른손) 1990년생	리카르도 산체스(원손) 1997년생	김민우(오른손) 1995년생	황준서(원손) 2005년생
-------------------	--------------------	-----------------------	------------------------	--------------------	-------------------

현진 이글스? 막강 선발 왕국 된 한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한때 ‘현진 이글스’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에이스 류현진(36)이 등판하는 날만 이길 수 있다는 의미로 ‘류패패패패’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류현진 외에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없었던 ‘암흑기’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다.

2024년 한화는 그렇지 않다. 개막 후 치른 8경기에 선발 투수 6명이 등판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승리를 따내지 못한 투수가 류현진이다. 외국인 선발 리카르도 산체스(26)와 펠릭스 페냐(34), 국내 선발 김민우(28)·문동주(20)·황준서(18)가 각각 자신이 등판한 경기에서 선발승을 따냈다. 한화는 이들의 활

약을 발판 삼아 개막전 1패 후 7연승을 달렸다. 늘 최하위권을 맴돌던 한화에 ‘선발투수 왕국’이라는 격세지감의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선발승 릴레이의 스타트를 끊은 건 한화에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외국인 투수 페냐였다. 지난달 24일 잠실 LG 트윈스전에 2선발로 출격한 페냐는 지난해 통합우승을 차지한 LG 강타선을 6과 3분의 2이닝 동안 6피안타 1볼넷 4탈삼진 2실점으로 꺾고 막았다. 올 시즌 한화의 첫 번째 승리였다.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치른 26~28일 SSG 랜더스와의 3연전에서는 김민우-산체스-문동주가 차례로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김민우는 첫 경기에서 5이닝 2피안타 3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해 2021년 14승 투수의 부활을 예감케 했다. 다음 날인 27일엔 산체스가 5와 3분의 2이닝 3피안타 1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잘 던졌다. 시범경기 때 부진으로 인한 걱정을 완벽하게 씻어냈다.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는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5이닝 6피안타 2볼넷 5탈삼진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다. 한화는 이날 승리로 6524일 만의 인천 원정 스윙(싸클이 승리)을 기록했다. 주자가 없을 때는 힘을 빼고 던지다가 위기 때는 최고 시속 158km 강속구를 뿌리는 문동주의 완급 조절에 SSG 타선은 맥을 못 쳤다.

올해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

을 받고 입단한 ‘수퍼 루키’ 황준서는 지난달 31일 대전 KT 위즈전에서 승리투수가 되면서 선발왕국 한화의 ‘화룡점정’을 완성했다. 김민우의 가벼운 부상으로 갑자기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도 황준서는 신인 답지 않은 두둑한 배짱을 앞세워 5이닝 3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한화 소속의 고졸 신인 투수가 데뷔전에서 선발승을 따낸 건 2006년의 류현진 이후 18년 만이었다.

이제 한화에게 필요한 건 12년 만에 금의환향한 에이스 류현진의 승리다. 그는 지난달 23일 LG와의 개막전에서 3과 3분의 2이닝 6피안타 3볼넷 5실점(2자책점) 하고 패전 투수가 됐다. 지난달 29일 KT와의 대전 홈 개막전에선 6이닝 8피안타 9탈삼진 2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동점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가 승리를 기록하진 못했다. 류현진은 오는 4일 대전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복귀 첫 승과 KBO리그 통산 99승에 재도전한다.

KBO리그 최정상급 라인업을 구축한 한화 선발투수진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프로 3년 차가 된 문동주는 “류현진 선배님이 오신 뒤 대화를 많이 나눴고, 많은 것을 배웠다. 비밀이라 공개할 순 없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도 들었다”고 말했다.

‘무승 투수’인 류현진도 후배 투수들의 성장에 흐뭇해하고 있다. 그는 “선수들이(연일) 집중하고 분위기 좋게 잘 해나가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영은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Lloyd: That's a great shirt. Where did you get it?
로이드: 셔츠 멋있네. 어디서 산 거야?
Roger: At that new store at the mall.
로저: 쇼핑몰에 새로 생긴 가게에서 샀어.
Lloyd: I really like it.
로이드: 마음에 쏙 든다.
Roger: I got it on sale. I got this shirt a pair of pants and a sweater.
로저: 세일할 때 산 거야. 이 셔츠하고 바지랑 스웨터 샀어.

Lloyd: Was it expensive?
로이드: 비쌌어?
Roger: Not a bit. All together I paid just \$30.
로저: 전혀 안 비쌌어. 전부 다 합해서 30달러 밖에 안됐어.
Lloyd: Just \$30 for a shirt pants and a sweater?
로이드: 셔츠하고 바지 스웨터가 30달러라고?
Roger: You heard right.
로저: 그렇다니까.
Lloyd: That's a steal!

로이드: 공짜네!
Roger: You should go there. The sale ends next Friday.
로저: 한번 가봐. 다음주 금요일이면 세일이 끝나.

기억할만한 표현
▶ not a bit: 전혀 아니다.
Jim: "Are you angry that I ate the last slice of pizza?"
(짐: 마지막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내가 먹어서 화났어요?)
Roger: "Not a bit. I didn't want anymore."

all together: 전부 다
(Lloyd is talking to Roger at work...)
(로이드와 로저가 사무실에서...)

(로저: 전혀 아닙니다. 난 더 먹지도 못해요.)
▶ You heard right: 맞습니다.
Jim: "Is it true that Jay is getting married?"
(짐: 제이가 결혼하는 게 사실인가요?)
Roger: "You heard right. He's getting married next month."
(로저: 맞아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로열쇠

(1)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그녀는 ~로 자식 잘 되기만을 바랐다 (3) 우주에 떠 있던 물체가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운석. 유성 (5) 앞이나 뒷 따위의 모양. 마주나는 앞은 앞자루가 없으며 3맥이 뚜렷한 ~이다 (7) 처음으로 일하여 그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 (9) 자선 사업이나 사회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사람 (10) 따뜻한 물이 솟는 샘 (11)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13) 땅의 모양을 그린 그림 (15) 어떤 작용에 대하여 그 반대로 작용함. ~ 간에 균가한다. ~ 준비! ~은 좌에서 우로. 균가는 진짜사나이 (16) 최대의 맹수로서 백수(百獸)의 왕(王)으로 불린다. 아프리카, 인도 등지의 삼림이나 초원에서 무리 지어 산다 (19) 장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동냥하는 사람 (21)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사람 (22) 양손의 집게 손가락으로 남의 항문을 찌르는 장난.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 (23) 나비와 비슷하나 몸이 더 통통하고 주로 밤에 활동한다 (25) 한글 자모 기의 이름 (27) 말보다 작고 귀가 길다 (29) 외할아버지 (30) 적을 알보면 반드시 패함. 경□□□

세로열쇠

(1) 먹으면 늙지 않는다고 하는 풀. 불로장생을 꿈꾸며 영원히 통일 중국을 통치하고 싶었던 진시황은 서복에게 ~를 구하여 오라는 명을 내린다 (2) 밥을 푸는 도구 (3) 별나게 이상하거나 아니고 위 눈에 거슬리는 꼬락서니. 오래 살다 보니까 ~을 다 보겠네 (4)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 별세계. □유□□ (5) 아랫도리에 입는 옷. 하의 (6) 심성을 속되게 이르는 말. ~가 못돼 먹었다 (8) 하나를 둘로 나눈 것의 절반.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9) 혼자서 노래를 부름 (12) 오래되었거나 희귀한 옛 물품 (14) 다 익지 못한 채로 떨어진 과일 (17)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잘그릇 (18) 갈거나 들 같은 곳에 저절로 생겨난 참외. 작고 맛이 없어 보통 먹지 않음 (20) 초승달 모양의 긴 타원형 열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용작물 가운데 하나 (21)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24) 몸 안의 가스의 방출 (26) 이기고 있다가 형세가 뒤바뀌어 짐 (27) 말로 단단히 부탁함. 가는 데까지 가거라/가다 막히면/앉아서 쉬거라/쉬다 보면/보이리/같이(김규동/~) (28)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재물을 빼앗는 강도

스도쿠

6			8		2		7	
2	7	1	4	3		8		
		8				6		9
				6	7			8
	1	4			8			3
				9			1	2
1			2	7			8	5
3				4		1		7
7			6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6	3	4	1	8	9	2	5	7
7	2	1	5	4	6	9	8	3
5	8	9	3	7	2	6	4	1
2	1	5	4	6	3	7	9	8
3	9	7	8	2	5	4	1	6
8	4	6	7	9	1	3	2	5
1	6	2	9	5	7	8	3	4
9	5	8	6	3	4	1	7	2
4	7	3	2	1	8	5	6	9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자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카드 번호 EXP. DATE: / /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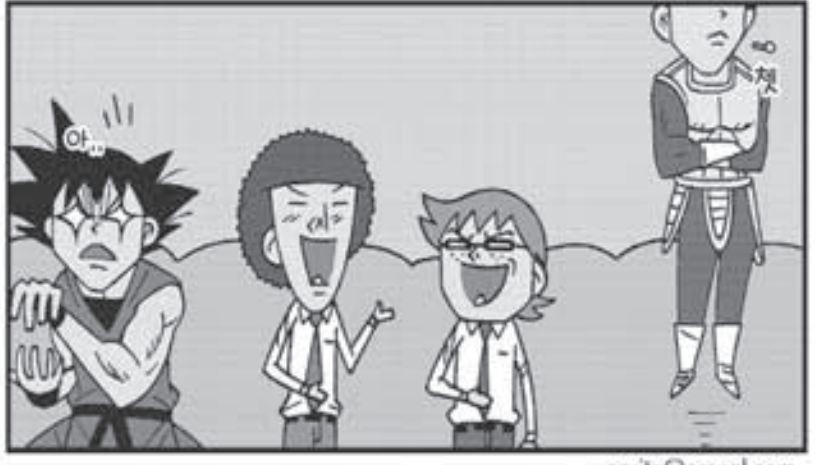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금지**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사평센터 | DC 건물 | 창고 | NNN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사평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팅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최근에 매매한 상용건물들이 실력을 증명합니다!

SOLD Popeyes \$2.5M VA. 새로지은 NNN 건물	SOLD Starbucks \$2.9M VA. NNN 건물, Drive-Thru	SOLD Chick-fil-A \$3.8M NNN 건물, Drive-Thru	SOLD Days Inn \$3.7M Days Inn, WM Co. 72 Rooms
SOLD Ruby Tuesday \$2.5M VA. NNN건물	SOLD DC 창고 \$2.5M DC. NoMa Metro 상권	SOLD DC 사평센터 \$2.4M DC.Capital Hill 지역	SOLD DC 사평센터 \$4.5M Popeyes 테넌트, 연인컴 \$32만
SOLD DC 아파트 \$1.5M DC NW. Metro 상권, 5 유닛	SOLD VA 창고 \$6.8M VA Industrial Flex	SOLD MD 아파트 \$2.2M MD Silver Spring	SOLD VA 창고 \$4.1M MD Hyattsville

FEATURED LISTING

MD 56,000 S/F Warehouse \$5.8M 6 Acres, Charles Co. 8 Loading Docks, 2 Drive-in, CSX 기차 Transload 가능 26 FT 천장높이, 연 \$450K 렌트인컴, 9,000 SF 증축가능, 공동투자 가능	SUNOCO Gas Station \$1.9M 건물 + 비즈니스 포함, 땅 0.76. MD PG Co. 연 \$15만인컴, SBA 용자가능, DC경계선, 하루3만대 교통량	7-Eleven w/Gas Station \$1.6M C-Store w/Gas Station 땅 1.2에이커, 연 \$78,000인컴 하루3만대 교통량, 3,000 S/F VA Suffolk, Absolute NNN
Popeyes NNN \$2.1M CAP 7%, 연\$149K 인컴 Absolute NNN Lease 땅 0.65, 2,700 S/F MD	Starbucks NNN \$3.2M CAP 5.25%, 2024년 새건물 하루 교통량 76,000대 땅 1.3 Richmond, VA	Shopping Center \$1.4M CAP 7.3% 연\$100K인컴 T-Mobile, 3 테넌트 땅 0.6 Chesapeake, VA
Cafe Bakery \$1.3M 연\$2.4M매상, Franchise VA, FX 카운티	Japanese Ramen \$550K 연\$1.3M매상, 스시/라면 전문 VA, Richmond지역	Japanese Sushi \$350K 연\$700k 매상, 35년 운영 스시 전문, VA, FX카운티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① 위싱턴 중양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양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 (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양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양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4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
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
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사무실과 동반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팩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옆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페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u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급휴가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국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니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너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급휴가/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너스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 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급휴가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베아글랩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시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셔널/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헤어왈(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리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엘리엇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으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타임, 폴타임, 엘리트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착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업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구인/구직>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 ·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행사 진행하실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방,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 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리버힐 학군
410-599-1800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 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 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f.(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매나사스 H-mart 근처 타운홈 방 렌트
walkout 1층 전체, 밝고 깨끗한 큰방,
주방(간단한 취사), 욕실, 세탁실, 주차편리,
별도 출입문, 인터넷, 유모, 비흡연자
703-400-4520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원비/냉장고
별도/ 주차/사위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 렌트 (방 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토크,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 여성 구함, 인터넷 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놓음,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 1, 샤워실, 출입문, 간단 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 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 공간에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 별도.
금연자, 그랜드 6분 롯데 11분, 오래계실분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3월 말 입주
703-975-0123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 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큰방, 1 작은방 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원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 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철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지하실 방 1, 화장실 1
703-887-5173

조용한 로던(페어팩스) 주택가
1층 같은 워크아웃 지하전체(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모, 냉장고, 세탁기,
주방 시설, 출입문 별도
571-488-5860

애난데일 K마트 뒤 싱글 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넉넉
703-965-2343

애난데일 방 1, 화장실 1, 애난데일 도서관 옆,
잠만 주무실 직장인 / \$600
703-350-198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비즈니스 커머셜 리스팅



-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상업용,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 개발 중인 진입로에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근교 (I-66 Exit 47) 싱글 주택 추천

- *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단층 주택으로 1층에 방 3, 화 2

-  **\$550,000**
방 3, 화 2.5, 차고 2
-  **\$530,000**
방 3, 화 2, 차고 2
1900스퀘어, 0.36 에이커
-  **\$590,000**
방 3, 화 2,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만드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완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렐름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순렌트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특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집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엘터레이션 가능한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월더 C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 거리)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임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할 일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운
살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깃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챗틀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꾸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켄트 4-9 S P번까지 8개
-던랩 (스페인제) 3-9 P S 7개
-요넥스 6-9 P 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개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탁,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합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개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베레스 3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론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발당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이이다: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코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이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Mr. Chung)

〈보석〉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 파워 스티밍 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다쉬워시,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 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라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임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텍,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리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리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로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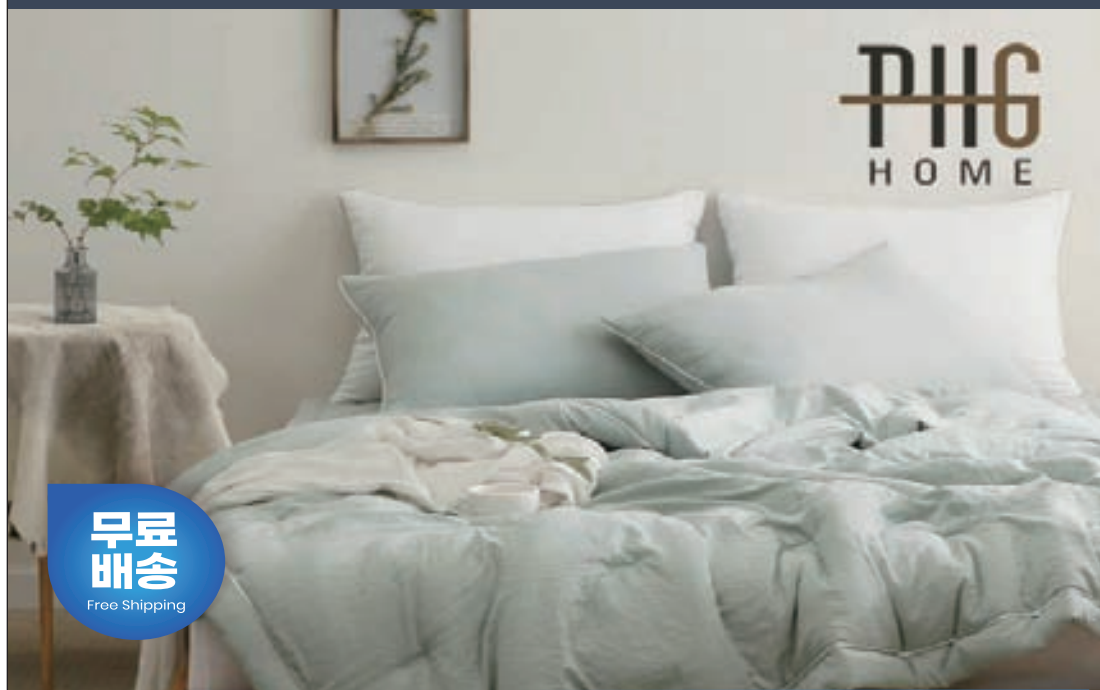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봄맞이 핫딜 세일

매달 찾아오는 핫딜의 톡큰 세일혜택! 이번 달에도 아낌없이 받아주세요~

H O T D E A L S U P E R S A L E



무료 배송
Free Shipping



XXIO NEW 2024 다이아윈스 골프공 [6구 증정]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백화점에 입점된 박흥근 홈패션

45년 고품격 디자이너 침구브랜드 & 신개념 에어워싱 기술
박흥근 PHG홈 **한국산 봄 에어워싱 차렵이불**

새로운 **BiFLEX FACE**와 진화된 **New Active Wing**
젝시오13 남성/여성용 **아이언세트**

퀵사이즈 차렵이불 Blue, Pink, Mint ~~\$130~~ **\$99**

5pcs 6,7,8,9,PW ~~\$1099.99~~ **\$1099.99** **7pcs** 5,6,7,8,9,PW,SW ~~\$1539.93~~ **\$1539.93**



무료 배송
Free Shipping

100% 천연 유기농 CBD, 안전한 힐링CBD (THC 0.03%함유)

만성통증, 염증, 불면증에 효능, 암 증상 및 우울증, 뇌전증 개선
풀 스펙트럼 **유기농 CBD 통증크림**

CBD1000mg ~~\$59.95~~ **\$59.95** **CBD2000mg** ~~\$79.95~~ **\$79.95**



무료 배송
Free Shipping

태국의 인삼 흑생강! 자색 생강, 파비플로라, Black ginger

72시간 국내산 저온액 추출공법으로 생산한 그라차이담 마일드
그라차이담/흑생강 파우치 70ml x 30packs

핫딜 출시 이벤트 특별세일 ~~\$119.99~~ **\$9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DIY KIT 2박스 쌀누룩 고추장을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인공조미료나 첨가물없이 우리 가족 먹을 고추장을 직접 제조
다산명가 **쌀누룩고추장 DIY Kit**

물붓고 섞으면 끝! 100% 한국산 원료 ~~\$49.90~~ **\$34.50**



이벤트
2개 사면 **\$40**

BEST
토너패드

무료 배송
Free Shipping

2개구매시 \$40 저자극 콜라겐을 짹 짹 담아 탱탱하게!

압도적 1위 토너패드! 탄력케어 주름개선 데일리 케어
메디힐 콜라겐 채움 패드 100매

1개 ~~\$22~~ **\$22** **2개** ~~\$40~~ **\$40**



Nation Wide **미주 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기타 지역

매매 구인

뷰티서플라이 **중식&양식류/달리베리**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f,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좋은대우, 주8일근무
 숙식제공, 알래스카지역 (907)545-3955 (907)545-874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꿈 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p to **40%** 할인
미라클터치 **천공상상**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천공상상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플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리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유당 도안역사당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리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햇살처럼 따뜻한 대한민국 최고의 온열매트 명가(名家) **부동의 1위 일월**

을 겨울 마지막 찬스를 잡으세요! (선착순 50분)
 www.ilwoulusa.com

- 품질대상 9년 연속 대상
-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 대표 브랜드 대상
- 한국 온열매트중 일월만 인증 UL®
- 짙질방 효과 탄소열선 원적외선 방출
- 전자파 걱정없는 무자계 탄소 열선
- 물세탁 가능
- 15시간 후 자동 전원 차단
- 좌우 분리 난방 (2인용)
- 환제 걱정 없는 7중 안전 장치

탄소 원적외선 벨보아원단 기모 극세사 워셔블 온열매트 트윈 \$329 퀸 \$379 트윈 \$229 퀸 \$279	탄소 원적외선 향균원단 에어로실버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269 더블 \$299 싱글 \$169 더블 \$199	탄소 원적외선 100% 천연섬유 프리미엄 텐셀 워셔블 온열매트 싱글 \$309 더블 \$359 싱글 \$219 더블 \$259	탄소 원적외선 특수코팅 방수 온돌마루 카본 카페트 중형 \$385 대형 \$465 중형 \$335 대형 \$415	모터없이 자연순환방식 숲속애 온수매트 트윈 \$349 퀸 \$419 트윈 \$299 퀸 \$369	편리한 소파용 온열매트 \$129 \$79

특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특점

새로 리모델링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특점

리모델링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특점

완전 리모델링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